

2009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9 788996 340355  
ISBN 978-89-963403-5-5

표장환상 3



#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a href="http://www.sncf.or.kr">www.sncf.or.kr</a> / <a href="http://www.snart.or.kr">www.snart.or.kr</a>
발행일	2010. 2
글 · 사진	김소연
디자인	새한칼라인쇄
인쇄	새한칼라인쇄

©성남문화재단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 나눔이 있는 은행주공

### ‘풀장환상’을 꿈꾸는 행복한 아파트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아파트 유형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되어 2007년 공공예술의 첫 발을 내딛었던 은행주공! 아파트 프로젝트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丸)상’이 계획한 1단계 3개년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시민 모두가 동네를 문화예술로 재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드높이는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 시작되었다.

2007년 아파트에선 이미 흉물로 변해버린 풀장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시작된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

2008년 풀장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이웃들이 문화적 소통이 가능케 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풀장환상 2’.

그리고 3년차인 2009년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가 꾸러지면서 2010년 이후 스스로 꾸려나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나간 ‘풀장환상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지난 3년간 은행주공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아직도 풀장 앞 벽면은 은행주공의 생태를 중심으로 한 ‘생태벽화 이야기’가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고, 은행초등학교 앞은 동네이야기를 담은 ‘별별 이야기 벽화’와 관리사무소 내려가는 벽면은 ‘얼굴이야기 벽화’를 풀장환상의 마을축제

인 ‘낙엽활극’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넥타이 맨 아빠의 얼굴과 나뭇 가지치기에 특징을 잡은 친구의 얼굴들을 그려 넣으며 박장대소 하던 기억이 새롭다.

지난 ‘풀장환상’의 3년간 프로젝트는 지역 아파트와 인근주민들에게 신선한 만남이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나의 삶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웃을 이어주는 소통의 계기였다. 주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갖게 했다.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에 대한 희망을 찾게 했다.

문화를 만들고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지만 오랜 세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이 되어 버리듯 문화란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동네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속되지 못하면 그저 좋았던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고 말 뿐 그 어떤 변화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지속성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몇몇의 어린이와 주부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다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네문화공동체 형성은 멀기만 한 과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의 결합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성남지역에는 전문예술가 뿐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 등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동네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찾아오고, 함께 소통하며 창작활동을 한다면 동네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생활 속에 가능한 구체적 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은행주공 스스로 문화예술 클럽을 형성하고,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가 ‘풀장환상’의 주인공으로 문화기획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줌마포토 사진클럽, 한지공예클럽, 나만의 책만들기 클럽, 생태연구클럽, 켈트클럽, 어린이풍물단, 통키타클럽과 어린이밴드 등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동네클럽 네트워크’는 이제 어느 동네보다도 멋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앞으로 발전된 ‘풀장환상’ 2단계의 목표는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획력을 스스로 키우고,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만의 ‘풀장환상’이 아니라 은행주공 아파트 주민 모두의 ‘풀장환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내는 것이다.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만큼 주민 모두가 함께

‘풀장환상’에 애정을 가진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열정, 문화예술가들과의 결합, 동사무소 등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 다른 어떤 동네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곳이 은행주공이다.

벌써 2010년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곧 은행주공 아파트에서는 청딱따구리가 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릴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은행주공을 둘러싸고 있는 남한산 자락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필 것이다. 아파트 둘러싼 여기저기 등성이에 꽃들이 만발하고 새 학기를 맞이한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재잘거리며 벽화가 그려진 길을 따라 내달릴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어르신들도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따스한 봄볕을 쬔 것이다.

풀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저녁마다 은행주공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담요극장이 열리고, 주말이면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연주하는 작은음악회가 열리는 곳 은행주공을 꿈꿔본다.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을 위한 이 행복한 꿈은 이제부터 은행주공 주민들이 나서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성남문화재단



## 목 차

### 04 프로젝트 북을 펴내며

### 연리이야기

- 12 연리이야기
- 14 아파트에서의 시도, 그 3년의 이야기
- 1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 20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요일정

### 이웃하나

- 24 이웃하다
- 26 풀장단장
- 33 IT 사람 (Red) - 김순희
- 34 매미솜는 둥 (101~103동)

### 다가서다

- 38 다가서다
- 40 여름방학특강
- 61 IT 사람 (orange) - 강현희
- 62 참 큰 은행나무동 (104~108동)

### 결을대다

- 68 결을대다
- 70 어린이밴드
- 73 어린이풍물
- 77 IT 사람 (yellow) - 이경진
- 78 새웃는둥 (109동, 111~117동)



### 상처입다

- 84 상처입다
- 86 포크아트
- 92 통기타
- 95 IT 사람 (green) - 이앵란
- 96 멋진아까시아나무동 (118~120동)

### 인정하다

- 102 인정하다
- 104 나만의 책만들기
- 109 IT 사람 (Blue) - 고은주
- 110 딱따구리 둥지동 (121~123동)

### 서로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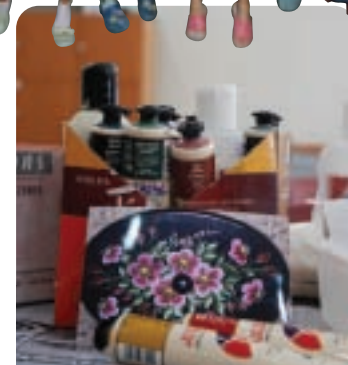
- 114 서로안다
- 116 한지공예
- 120 사진반
- 127 IT 사람 (Navy) - 박은진
- 128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 하나되다

- 138 하나되다
- 140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
- 149 IT 사람 (Purple) - 이유화

### 빛이되다

- 152 빛이되다
- 154 풀장환상의 겨울
- 156 마을벽화작업
- 160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은행주공팀장 후기









## 연리이야기

104동 아래쪽에 있는 수령 300년의 은행나무!  
옛날에 이 큰 은행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길을  
찾아왔다고 하여 은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큰 은행나무는 사랑나무라 불리우는 연리목이다.

연리의 여정은 참으로 흥미롭다.  
가까이 이웃한 두 나무의 줄기나 가지가 자라는 동안  
지름이 차츰 굵어져 서로 맞닿게 된다.  
두 나무는 해가 지날수록 서로를 심하게 압박하게 되고,  
맞닿은 부분의 껍질이 압력으로 벗겨지면서 생물학적인 결합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지름생장의 근원인 부름켜가 조금씩 이어지고 그 다음은 양분을  
공급하는 유세포가 서로 섞인다.  
나머지의 보통 세포들이 공동으로 살아갈 공간을 차지하면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연리의 여정은 끝이 난다.

1,900여 세대의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하지만 그 곳은 은행주공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순간 숙명적으로  
그들에게 공통점을 안긴다.  
같은 땅에 뿌리내려 종국에는 하나의 나무가 되는 연리목처럼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이들은 가깝기에 서로를 압박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  
국에 은행주공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공동체를 이룬다.

삶이 뿌리내린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일어날 길고 긴 연리의 여정!  
그 촉매제로써 은행주공 문화배움터가 문을 열었다.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아파트에서의 시도 그 3년의 이야기

2007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성남문화재단에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 중 아파트 형 사업을 시작하였다. 프로젝트는 여주 밀머리학교 박찬국 감독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작가들이 참가하여 진행하였다.

남한산성 산 줄기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갈 무렵 노오랑게 물든 은행잎과 빨알갛게 물든 단풍나무들에 둘러쌓인 은행주공에는 풀장을 비롯하여 담벼락과 아파트 길목마다 어린이와 주부 그리고 작가들이 함께하는 미술, 공예, 공연 등이 이어졌다.

희색빛 담장에는 새들과 풀벌레, 동네의 모습이 담겨지고, 아파트 길목 어귀에는 '매미솟는 동' '딱따구리 둥지 동' 등 예쁜 이름의 가로등이 소박하지만 산뜻한 빛을 비친다. 숲 속에 자리 잡은 계단은 무지개 빛을 담고, 관리사무소 앞 시계탑은 오래 묵은 때를 벗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 입었다.

동네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졌다.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벽화를 그리고, 엄마들이 마녀 옷을 입고 동화를 들려 준다. 도자기를 만들고, 풀장에 자리를 피고 앉아 영화도 본다. 그렇게 2007년 가을 풀장환상은 은행주공에 풍성한 축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찬 바람이 불고 참여했던 작가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했던 풀장은 다시 문이 잠기고, 무지개 빛 계단은 사람들

의 발자국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먼지로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쉬움은 주민이 주체가 된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8년에는 은행주공부녀회가 주관하고 지역 작가들과 사랑방문화클럽의 협조 속에 2008은행주공문화배움터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강좌를 준비하고, 동네 주민 중에 전문가를 강사로 모시고, 부족한 강사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이나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구성, 등 주부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실무적인 부분을 지역 작가가 함께 고민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그렇게 문화예술 강좌를 진행하고, 어린이버룩시장을 개최하고, 은행주공 풀장에서 클래식, 합창, 풍물, 밴드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2008 은행주공문화배움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작가가 실무적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인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하여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었다.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반면 소수 실무를 담당하는 주부에게 지나친 실무 하중과 주민 간 소통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 왔다. 은행주공문화배움터를 주관하고 진행했던 주민은 힘들고 지쳤으며, 은행주공문화배움터를 지켜보고 있던 주민은 부녀회를 비롯해 몇몇 주민들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갈등은 결국 부녀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2009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불확실해지게 되었다.

2009년 은행주공문화배움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08년의 성과인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게 된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강좌를 준비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주민간의 갈등 문제는 강의 공간인 부녀회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간을 비롯하여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주민 간의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의 신뢰 회복이 생활문화예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 무렵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태평동,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 시장, 상대원 공단 등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동네에서 활동하던 지역 작가들과 사랑방문화클럽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함께 지원센터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서는 은행주공문화배움터를 이끌고 있는 주민 주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공간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그 후 운영위원회 회의와 사랑마루 회의를 통해 은행주공 풀장을 주민들의 만남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미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 했다. 그리고 문화배움터 운영위원장님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시의원이 함께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풀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 한달간 작가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논의하며 만들어 갔다. 물론 주민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했다. 마침내 온돌이 깔리고, 탁자가 놓여지고, 밴드실이 꾸며지고, 책꽂이에 파라솔, 화단에 평상까지 예쁘게 꾸며진 풀장환상에 주민 대표 분들과 성남문화재단 직원, 문화배움터 식구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며 오붓한 오픈식을 가졌다. 그리고 소리가 큰 어린이 풍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풀장환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동네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되었고, 마을사업에 지역 작가들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만나고,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활 속 가까이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이 생활문화예술 활

성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다.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는 온돌방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집에 있는 책들 가져다가 여기 책꽂이에 가져다 놓자. 다른 사람들이 빌려 볼 수 있게.” “어디 온풍기 안쓰는거 없나 알아보자. 아이들이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 “선생님 우리 겨울방학때 이곳에서 특강 같은거 하면 어때요? 하모니카나 색소폰, 아니면 오카리나 이런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은데....”

2008년에 모든 실무일을 혼자 감당했던 강현희씨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작년에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즐기만 하려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올해 웅렬 엄마나 승구 엄마 하는거 보니까 대견하고, 믿음직스럽고, 너무 알아서 잘해.”

어느새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은 문화예술기획자로 거듭나고 있다.





##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가 막을 내렸다.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기나긴 겨울!

문화배움터의 열혈 참여자들은 2009년 다시 시작될 문화배움터를 고대하며 어렵사리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의 주체였던 부녀회가 사라지면서 2009년을 이어갈 원동력이 사라져버렸다. 문화배움터를 기다리며 모임을 유지해왔던 이들 사이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왔다. 이에 문화배움터 각 동아리의 반장들은 3월 11일 부녀회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서로 관심 분야는 달랐지만 2007년 풀장환상과 2008년 문화배움터를 기억하는 이들은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의 여정은 수혜를 받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주체가 되는 주인의 입장으로 바뀌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일방적으로 받는 이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입장으로 변모하기까지 많은 좌절과 오해, 그리고 갈등이 있었다.

먼저 배움의 공간을 잃었다. 그 동안 동아리의 강좌가 이루어지던 부녀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녀회가 해체되었으니 그 공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갑자기 닥친 시련에 좌절했지만, 싸웠고, 화해했고, 소통해서 더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다.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독순이 아줌마 근성으로 다시 일어서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는 처음 모였던 그 의지 그대로 멋진 마무리를 이루어냈다.

굳게 닫힌 풀장 문을 다시 열고, 다시 오고픈 공간으로 단장했다. 깔끔하게 단장된 풀장에 모두를 초대하여 그 간의 오해를 씻고, 하나 둘 씩 풀장으로 모임을 옮겨왔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고 지금은 내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핵심 원동력!

그것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누는 사람으로... 마을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 2009년 은행주공 아파트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7명의 기수들과 그들처럼 언젠가는 나누는 사람으로 변모할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요일자



2 february	3 March	4 April	5 May	6 June
26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반장 모임에서 사업공모 및 운영위원회 구성 합의	11일 운영위원장 선출 (김순희 회장)	01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교부신청 서류 제출	11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홍보 시작	02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강의 시작 (20차시 강의 - 주1회) (은행주공생태모임, 나만 의책만들기, 어린이풍물, 어린이밴드, 포크아트, 한지공예, 통기타, 포토 죤마 등 8개 소모임 강 의 시작)
	18일 2009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공모 신청	24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사업계획 최종 확정	29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오리엔테이션	
	23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사업공모 확정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강의중	19 ~ 25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여름방학특강  • 클레이아트, • 어린이 문인화 • 리본공예)	07일 풀장환상 오픈식	17일 은행주공문화축제	23일 벽화작업 시작
	13일 풀장공사 시작			



# 이웃하다

- 01 이웃하다
- 02 풀장단장
- 03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여름방학특강
- 04 It 사람 (Red) - 김순희
- 05 매미솟는 동 (101~103동)



## 이웃하다

이웃하다 -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주거양식 아파트!

성남시 초창기에 지어진 은행주공아파트에는 무려 1,900여 세대가 이웃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이 용기종기 일정한 공간에 이웃하며 사는 모습은 여름 햇살을 받으며 푸르게 피어난 수국의 꽃무리와 흡사하나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이웃과의 경계는 수국의 무리와 다르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그 이상의 소통의 벽이 존재한다.

차가운 경계로 이루어진 아파트라는 공간에 수국의 꽃무리처럼 따뜻한 이웃함이 흐를 순 없을까?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아파트유형의 첫 시도는 은행주공아파트에 문화 예술의 힘으로 따뜻함을 불어넣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 풀장단장



찌이이익...덜 킁!!

굳게 잠겼던 풀장의 빗장이 열렸다.

먼지 쌓인 나무 이름표와 때문은 풀장환상 간판만이 2007년 시끌벅적 했을 이곳을 추억할 뿐이다.

어렵사리 이 곳의 문을 다시 연 이들은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의 참여자로 만나 다시 한번 은행주공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꽃피우고자 뭉친 2009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열혈 아줌마들이다.

이들이 박진영, 이화섭, 정삼선 작가 등 사랑마루 작가들과 함께 먼지 쌓인 이곳을 다시 한번 신명나는 은행주공의 사랑방 '풀장환상'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 풀장외벽 단장 1

퍽! 퍽! 또르르르~

발밑으로 동그란 나무조각이 나뿔군다.  
8월의 땀별 아래 비지땀을 흘리며  
벽에 단단하게 고정된 무언가를  
열심히 떼어내고 있는 이는  
2007년에도 풀장 단장에 참여하셨다는 이화섭 작가!

날카로운 끌로도 잘 떨어지지 않는 나무 이름표!!  
누가 이리도 야무지게 붙여놨을까 생각하는 찰라  
이화섭 작가가 말했다.  
“그때 이 나무이름표 내가 붙였거든요!!”  
이렇게 떼어버릴 줄 알았으면 좀 떼기 수월하게 붙여놓을 걸 그러셨다는  
이야기에서 씁쓸함이 묻어났다.

풀장환상이 오래오래 계속되리라는 마음으로  
나무 이름표를 꼼꼼히 붙여놓았을 이화섭 작가의 모습을 떠올려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풀장에 방치되어  
뽕얀 먼지를 뒤집어쓴채 나뿔구는 나무 이름표의 처지가 처량하다.

2008년 발생한 풀장의 화재사건 이후로  
풀장은 그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2007년 시끌 벅적 했을 이곳을 떠올리면  
이 공간을 꾸준히 잘 활용하고 지켜내지 못했음이 너무도 아쉽지만  
풀장환상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 곳을 새로 열고 단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냈음을 생각하면  
새롭게 꾸며질 풀장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렌다.



## 풀장외벽 단장 2

8월의 맑은 하늘이 갑자기 심술을 부린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  
 아침 일찍부터 풀장 외벽 칠 작업을 하신 이화섭 작가의 마음도  
 빗물에 씻겨져 내리는 덩마른 보랏빛 페인트 처럼 흘러내린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짙게 내리쬰고 이화섭 작가는 번덕쟁이 하늘을  
 원망하며 흘러내린 페인트위에 다시 하얗게 물든 붓을 쓸어내린다.

이번 은행주공 풀장 단장은 박진영, 이화섭, 정삼선 작가가 맡아서 진행했다.  
 세 분은 10여년 이상 지역 공공미술 영역에서 활동하신 전문가들로  
 이번에는 '사랑마루' 공공미술 작업 팀으로 함께 했다.  
 특히 이화섭 작가는 2008 은행주공 마을 축제에서 솟대 팀으로 참가하여  
 멋들어진 사자춤으로 잔치의 흥을 돋아주는 등 다양한 재주를 지니신 분이다.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도 습하고 뜨거운 날씨...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작가들의 열정 만큼 멋지게 변해있을 풀장이 기대된다.



## 풀장 내부 단장

쇼파에 붙은 담배 불로 인한 화재는  
 샤워장으로 사용되었던 풀장 내부를 온통  
 검은 그늘음으로 뒤덮었다.  
 곳곳에 거미줄까지 뒤엉켜 풀장 안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어두컴컴한 미로 같은 이 곳을 어떻게 은행주공 문화사랑방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의 이런 걱정은  
 작가들의 손길이 미치면서 서서히 사그러졌다.  
 그림언덕 작가팀은 이곳에 온돌마루를 깔고  
 알록 달록 상큼한 빛깔로 색을 입혀  
 누구나 찾아오고픈 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풀장 안에서는 이미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여름방학 특강의 일환인  
 어린이 클레이아트 수업이 한창이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 아이들은 저마다  
 "저는 이 색깔 앞에서 찍어주세요!!"하며  
 각각 취향에 따라 연두, 초록, 분홍, 노랑의 색이 칠해진  
 벽에 가서 포즈를 취해본다.  
 새롭게 단장한 풀장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듯 하다.







## 밴드실 단장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강좌 중에는 어린이 밴드, 어린이 풍물 등 악기를 사용하는 강좌들이 있다.

필연적으로 소리가 나는 수업을 해야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사는 아파트 안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수업을 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2008년 마을축제 때도 소음관련 민원이 많았던 터여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와 박진영 작가는 밴드실을 꾸미기에 앞서 고민이 많았다.

방음시설을 할 수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고가의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심 끝에 박진영 작가가 아이디어를 냈다.

계란판을 이용해서 벽에 방음처리를 하는 것이다.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주부들은 주위 인맥을 동원하여 계란판 수집에 들어갔다.

폴장 안에 계란판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계란판을 모으셨는지 놀랍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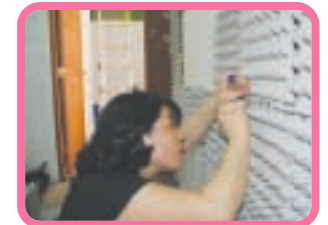
계란판을 벽에 붙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작업은 생각보다 수월치 않았다.

계란판에 아주 적절한 양의 실리콘을 묻혀 벽에 붙인다.

실리콘의 양이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된다.

그리고 들뜨는 이음새엔 강력접착제를 이용해 마무리 해준다.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자녀 중에는 밴드실을 이용하는 강좌를 듣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내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듯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구슬땀을 흘렸다.





오래 방치된 창고에는 정리할 것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살림의 달인들! 프로 주부들의 손길이 닿자 그 많은 물건들은 이내 자기 자리를 찾아 사사삭 정리되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짧은 나무문이 설치되었고, 풀장 밖에는 결이 고운 나무 벤치와 파라솔 탁자도 자리를 잡았다. 지나던 주민들이 들어와 뭐하는 곳이냐며 말을 걸어온다. 나무 벤치와 파란 우산이 싱그러운 파라솔 아래에는 이내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 올랐다.

박진영 작가의 붓끝에서 멋진 풀장환상 로고가 재탄생되었다.

“그럼 이 낡은 풀장환상 간판은 떼어버리죠!” 하는 의견이 나왔다. 2007년 제작한 풀장환상 간판은 무심한 시간에 빛바래있었다.

하지만 박진영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이 낡은 간판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특유의 느릿하고 나즈막한 목소리로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을 설득했다. 새로움을 이유로 옛것을 모두 지워버려 추억할 무언가를 남겨두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하게 되었다.

낡은 풀장환상 간판이 말하는 것 같다.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 김 순 희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회장

2008년 문화배움터 사진반 강의에 참여자였던 김순희씨는 2009년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의 회장이다. 2008 문화배움터가 은행주공 부녀회를 주체로 진행되었으나 은행주공 부녀회가 사라지면서 2009년 문화배움터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사라져버렸다. 2008 문화배움터 참가자들은 2009년에도 은행주공에 문화배움터를 열고자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에 2008년 강좌의 각반 반장들을 중심으로 2009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모두들 문화배움터의 열혈 참가자들 이었으나 막상 참가자가 아닌 주체로써 문화배움터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아무도 선뜻 2009 문화배움터를 이끌어 갈 회장자리에 자원하지 않았다. 이대로 운영위원회가 사그라질 찰라!! 확끈한 김순희씨가 나섰다.

주부 역할에 공부방 운영까지 1인 2역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의 만연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셨다. 덕분에 은행주공 아파트에 2009년에도 문화배움터가 열릴 수 있었다.

“나는 말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 일할 때 계속 지키고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몰라!! 대신 내가 밥사는건 정말 잘해! 서로 좋은 맘으로 모였으니 못나온다고 구박 말고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언니가 와서 맛있는 밥살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즐겁게들 일하자구!”





## 매미솟는 동 101~103동

한 여름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매미소리!!  
매미는 은행주공 아파트 전체에서 발견 되지만,  
101동에서 103동 사이를 지나며 발 밑을  
유심히 보면 매미 땅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미는 2~7년 정도 유충 상태로 땅 속에 산다.  
땅에서 나무 위로 매미들이 솟아오르는 곳,  
그래서 2007년 풀장환상 공간재생 프로젝트로  
이정표 이름을 붙일 때  
'매미 솟는 동' 이라고 이름붙여졌다.



### 101동 옆 대추나무

잎이 늦게 나와서 양반나무라고도 한다. 가지사이에 돌을  
꽂기위 놓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며 이를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고 한다.  
대추는 씨가 하나여서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삿상에 대추가 올라간다.



### 관리사무소 옆 화단의 18년생 잣나무

앞에 서리가 내린것 같다하여  
상강목이라고도 한다.  
열매는 12년 이상되어야 열리며,  
많은 열매가 열리려면 25년이 넘어야 한다.



### 관리사무소 옆 화단 소나무

소나무는 타감작용을 해서 소나무 숲 옆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



### 103동 앞 매미 솟는 구멍 옆 메타세쿼이아

주로 가로수나 공원수로 심는 나무로 중국이 원산지 이며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통해 들어왔다.  
미국에서 자라는 세쿼이아라는 나무보다 뒤에 나타났다는 의미로 메타세쿼이아라 불리우며,  
은행나무처럼 공룡시대에 함께 살았던 화석나무로 물가에서 잘 자란다 하여  
북한에서는 수삼나무라고도 한다.

# 다가서다

- 01 다가서다
- 02 여름방학특강
- 03 1t 사람 (orange) - 강현희
- 04 참 큰 은행나무동 (104~108동)





## 다가서다

다가서다 - 대상이 있는 쪽으로 더욱 가까이 옮기어선 모습을 말한다.

그 동안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은행주공 부녀회가 와해되면서 입주자대표위원회와의 갈등으로 강의 장소로 사용하던 부녀회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순수하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웃한 이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의 모임이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자발적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를 오해의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문을 연 문화배움터가 난관에 부딪히자 문화배움터의 운영위원들은 의기소침 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가? 아줌마들의 막강 파워를 발휘해서 오해의 시선들에게 한발 더 다가섬으로써 그간에 묵은 오해를 씻어내고 닫힌 풀장의 문을 여는 성과를 얻어냈다.

진심을 다해 한발 더 다가서는 행위...  
이것이 공동체 만들기의 시작이었다.





##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여름방학특강

풀장환상이 다시 문을 열고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되었다.  
 매미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행주공의 여름!  
 엄마와 아이가 모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문연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여름방학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단기 강좌지만  
 새로 단장한 풀장환상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클레이 아트
- 어린이 문인화
- 리본 아트







## 어린이 클레이 아트

새단장한 풀장에서 함께 하는  
문화배움터 방학특강 어린이 클레이 아트 수업 첫째 날!

그런데 하늘이 심술을 부린다. 심술난 아이의 양볼처럼  
부풀어 오른 구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씩 빗물을 떨구고...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에 아이들의 발길이 풀장으로 향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온다.

그러나 기우였나보다!!

한명씩 두명씩 우산에 장화로 무장한 아이들이  
풀장의 문을 두드리며 입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풀장 안이 꽉 찼다.

12명 정원인 오늘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1명

**참여자** 남한솔(은행초5), 김유진(상원초4), 한수민(상원초4), 이은비(상원초4), 이지은(상원초2),  
이유진(6살), 김다음(7살), 조미연(은행초2), 박서현(은행초3), 김윤(은행초3), 이선경(7살)  
모두 공주님들이다.



여름방학 특강 클레이 아트의 강사는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에 친절함이 베어나는 조지영선생님이다.

조지영선생님은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회장 김순희씨의 소개로 이번 문화배움터와 인연을 맺었으며, 은행초, 상원초 등에서 방과 후 수업을 4년째 진행하고 계신 베테랑 강사다.

아직 풀장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후덥지근한 날씨에 선풍기조차 돌지 않는 배움터에서 쿨한 땀방울을 쏟으시면서도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 수업은 곰돌이 바구니 만들기이다.

완성작 샘플을 보니 첫수업 치고 너무 어려운데 아닐까? 오늘 다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은 클레이를 떼는 법 부터 색 섞는 법, 공모양, 물방울모양, 양쪽물방울 모양, 주사위, 둥근기둥 만드는 법 등 기초부터 꼼꼼히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진행되었다.

"분홍색은 어떻게 만들까요?"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빨강이랑 하양을 섞어요!!!"

조용하던 배움터가 일순간 떠나갈 듯 하다.

"맞아요!!"





"그런데 클레이는 진한색보다 흐린색이 많이 들어가야해요!!"

"그래서 하얀색을 많이 주고  
그 속에 빨간색은 코딱지 만큼만 넣어야 분  
홍이 되는거예요!!"

코딱지 만큼이란 표현이 너무 와닿았던 것  
이었을까?

아이들은 손에 쥔 빨간색 클레이를 조금씩  
떨어내더니 한명의 실패도 없이 고사리 같  
은 두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이쁜 분홍빛을  
만들어 낸다.

밖에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날은 더 후  
덥지근해져 클레이가 점점 끈적거리며 손에  
붙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  
된 수업에 단 한 마디의 불평도 나오지 않는  
다.

아이들 대상의 수업이 이렇게 조용하고 진  
지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본격적인 곰돌이 만들기!!

선생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모두들 각  
자 개성을 살려 다양한 곰돌이를 만들어낸  
다.

저 작은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하면 얼굴이,  
눈이, 코가, 입이 완성되며 곰돌이가 되어가  
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 이야기가 있는 곰돌이 만들기!!

유진이는 하얀 백곰을 만들었다.  
여자곰은 모자대신 리본을 장식하고, 남자곰은 신사모자를 씌우려고 했는데 아  
무래도 모양이 '갓' 같다며 선비곰이란다.

미연이의 곰돌이는 유난히 팔이 울퉁불퉁 하다.  
"근육이 있네!! 이 곰은 헬스 좀 했나봐!!"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베시시 웃  
으며 열심히 또 무언가를 조물딱 거립니다.

완성작인가 했는데... 어느새 조그만 손에는 꽃다발이 만들어졌다.  
"부케구나!!!" 역시 여자아이는 달랐다.  
두마리의 곰은 사랑하는 사이고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중이란다 ^^ 아이들의 곰  
돌이는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미연이의 결혼하는 곰돌이를 본 윤이는 자기 곰돌이가 불만이다.  
"선생님!! 다시 만들고 싶어요!! 여자곰이 남자곰보다 못생겼어요!!"  
수업 시간이 끝나가는데 처음부터 다시 만들 기세다 !!  
그때 조지영 강사가 윤이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그럴수도 있지!! 요즘은 꽃미남이 많자나!!!" 선생님 말씀에 안심이 되었는지  
윤이도 다음 진도를 따라했다.



#### 비에 젖지 않게 조심조심

수민이는 중간에 실수를 해서 곰돌이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두마리를 다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의 수업시간이 다 끝나고도 작품을 완성하느라 풀장을 떠날 줄 모른다. 어른들 같으면 급한 맘에 대충 마무리 지을 텐데 꼼꼼하게 장식에 불터치까지 해서 멋지게 두마리 곰을 완성해 나갔다.

'다음 시간에 하자!!'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조지영 선생님은 서두르라는 말 한마디 없이 곰돌이의 두 뺨에 바알간 불터치까지 이쁘게 마무리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수민의 곰돌이가 완성되고 참가자 11명 모두 두마리의 곰이 장식된 바구니를 손에 들고 비에 젖을까 조심조심하며 풀장을 빠져나갔다.

저 빗물을 헤치고 뚱뚱 풀장을 걸어들어왔을 때의 호기심 어린 표정보다 훨씬 더 밝고 뿌듯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향한다.

“선생님 선생님~~ 이 동물들 중에 뭐가 제일 잘 만든거 같아요?  
저는 강아지를 제일 잘 만든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혜원이가 자랑 스러운 듯 강아지 귀를 매만지며 말한다.  
각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더 이쁘게 만들어 지는 듯 했다.



“저 풀장 자주 놀러올래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선생님 이제 안 오는데?”

“음...선생님 생각하면서 놀러올래요!!!”

-- 영옥이는 벌써 풀장환상 팬이 되었다.

#### 클레이 강좌 두번째 날,

공주님들 사이에 용구, 승구 형제가 들어왔다. 조심조심 정교하지만 느릿느릿 작품을 완성해 가는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거침없이 클레이를 붙여나갔다.

매끈하진 않지만 속도감있게 작품들이 완성됐다.







### 다시 찾은 클레이 강좌시간!

강의의 인기는 대단했다. 아이들이 작품을 가지고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서일까? 방학을 맞아 수민이네 놀러왔다가 수민이가 만든 곰돌이를 보고 따라 온 사촌 동생 민주 등 참가 어린이가 21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나 궁금하다.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도 강좌 인원이 이렇게 초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여쭈야 하나 고심했지만 오히려 조지영 강사 쪽에서 먼저 오는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지 않냐며 상황을 양해해 주셔서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클레이 아트 수업은 아이들의 여름방학 만들기 숙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만족 또한 큰 강의였다.





## 어린이 문인화

어린이 문인화...파퓰 머릿 속을 스치는 이미지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멋지긴 한데 어려울 것 같다.  
기특하게도 붓을 잡아보겠다고 모인 녀석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하다.  
그런데 시끌벅적 들어오는 녀석들을 보니 어려도 너무 어리다.  
이 꼬맹이들이 짧은 여름방학 특강 기간 동안 사군자를 그릴 수 있는 걸까?

참여자 박서현(은행초3), 김윤(은행초3), 김민(은행초4), 조미연(은행초2), 김민정(은행초5),  
이지원(은행초2), 이승엽(은행초4), 김동현(은행초3), 김동휘(7세), 박현욱(은행초3)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문인화를 지도를 맡으신 분은 문인화 동호회 '수묵향기'의 대표이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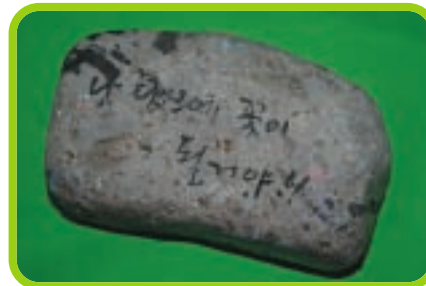
현대미술협회 초대작가, 한국교육미술협회 초대작가, 전국회화대회 초대작가, 라이브서예 작가로 활동하시는 베테랑 강사이다. 2008 문화배움터에서 어린이 동양화로 인연을 맺어서 올해 여름방학 특강에도 강의를 맡아 주셨다.

문득 동양화, 서예, 문인화....  
뭐가 다를까? 궁금하다.

이런 나의 질문에 유명현 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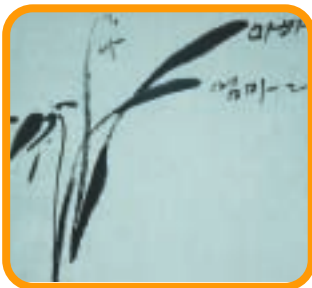
“문장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죠!”

전문화가 아닌 문인들이 그린 그림! 그래서 그 안에 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문인화라고 한다.





## 붓과 친구가 되어요!



짧은 특강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문인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유명현 강사의 답은 이렇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이 붓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붓을 쥐어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 나중엔 재능을 발견하는 아이들도 나타나죠!”



먹물과 붓을 만져보는 경험! 붓과 친구가 되는 경험 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붓과 친구가 되는 유명현 선생님의 문인화 수업은 어려운 난을 치는 수업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강습법이 있었다.

“예쁜 아가씨, 멋진 아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그래서 새싹인 내가 나와요!”

선 몇개 그렸을 뿐인데 금세 멋진 난이 완성된다.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다르게 보이거나보다

“콩나물 같아요!!”

하는 민정이의 말에 선생님은 허허 웃으신다. 처음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뭔지 모르겠더니 슬슬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난다.

미연이는 선생님이 그려주신 병아리 옆에 미연이표 병아리를 그린다.

“선생님 병아리가 제 병아리 엉덩이를 물었어요!!”

“헤헤헤!!!!” 그림 속 병아리들 보다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들이다.

“선생님 저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려도 되요?” 개구쟁이 민이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낸다.



“전 뮤즈 그럴거예요!!”

뮤즈가 뭘까 했는데...

아이들의 게임 카드에 나오는 캐릭터였다.

금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게임카드 그리기

경쟁이 붙었다. 근데 제법들 비슷하게 그리긴 한다.



성격 급한 승엽이는 선그리기 연습 몇번 하더니

“저 소나무 그리고 싶어요!!!!” 하고 선생님을 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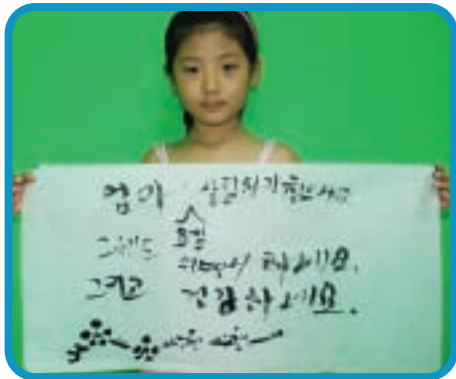
너무 앞서 나가는 승엽이!

결국 소나무는 그리지 못했지만 선생님과 함께 그린 난초 그림을 받아들고 베시시 웃는다.

“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못말리는 개구쟁이 들이다.





반면 여학생들은 모범생들이다.  
서현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더니  
‘엄마 요즘 살림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쉬면서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매화를 그려넣었다.  
기특하기 그지 없다. 저런 딸을 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본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야외수업이다.  
풀장 나무 그늘 밑에 탁자를 깔고 탁 트인 공기를 마시며 수업을 했다. 짹짹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도 나무 그늘 밑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랑 바람이 분다. 바람에 실려오는 수목향기가 오늘따라 더 짙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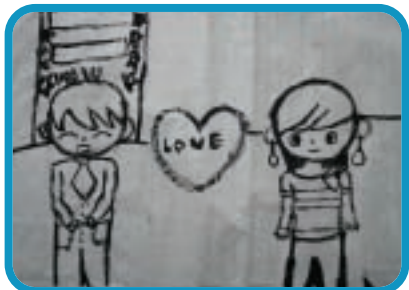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야외수업은 항상 신난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의 실력도 일취월장이다.  
야무진 지원이의 손길에서 나온 소녀 얼굴은 선생님이 준비해오신 도안과 다를바가 없어보인다. 지원이는 벌써 붓과 친구가 된듯하다.

찰칵 소리에 깜짝 놀라 그리고 있던 그림과 똑같은 팬더 표정이 된 미연이,  
어젯밤 꿈에 봤다는 괴물을 실감나게 그리는 현욱이,  
그림이 빨리 말라야 한다며 그림을 들고 풀장을 뛰어다니는 승엽이,  
모두 모두 묵내음에 흠뻑 빠졌다.







### 언니두 그려드릴까요?

센스쟁이 민정이는 나를 모델로 작업에 돌입했다. 멋진 남자친구 생기라며 가상의 훈남 남자친구와 하트, 그리고 정채불명의 네모를 그려줬다. 뭔가 물으니 7성급 호텔이라며, 빨리 결혼해서 7성급 호텔로 신혼여행을 가란다.



민정작가의 덕담?이 담긴 선물때문에 내년엔 좋은 사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다.

다 그린 작품은 잘 마르도록 풀장 가장자리 턱에 쪼르륵 올려놓았다.

“아참! 깜빡했다”하며 붓을 들고 지원이가 뛰어온다. 프로작가처럼 ‘지원’ 하고 싸인을 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붓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멋진 시와 그림이 담긴 부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은행주공 사랑방

포장화

## 리본공예

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언뜻 선물 포장 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하지만 유미애 선생님과 함께하는 리본공예 시간에는 이 가나다란 천조각이  
꽃도 되고, 핀도 되고, 머리띠로도 변하는 마술이 벌어진다.

여기 리본으로 예쁜 소품을 만들기위해 모인 10명의 주부들이 있다.

참여자 박은진(118동), 배진아(112동), 고은주(111동), 김영란(103동), 송정임(119동),  
이주은(118동), 황세인(112동), 이유화(112동), 김윤의(장수빌라), 김민선(진보빌라)

“언니! 원래 수업할 땐 이렇게 이쁘게 하고와?”

“못알아 볼뻔 했자나!!” 라는 이유화씨의 칭찬에  
“나 원래 이려고 다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나 생각하겠다!!”라며  
말그레해 지시는 유미애 선생님은 리본공예 3년 경력의  
개인 활동가로 은행주공 123동 주민이기도 하다.



단아한 외모 만큼이나 재료 준비도 깔끔하다.



주제와 인원애 맞게 미리 준비해온 재료들이 각각 비닐에 담겨있어서 늦게 온 수강생도 저 비닐팩 하나만 가지고 상에 둘러 앉으면 수업준비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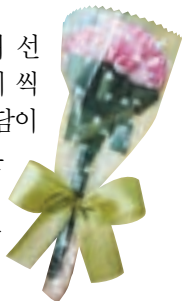
수강생이 전부 주부들이라 아이들 간식챙기고,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 일들을 보다보면 좀 늦기도 하고, 먼저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강사가 재료를 세심하게 준비해 오니 늦게 온 수강생도 금세 뒤쳐진 수업에 따라갈 수 있고, 일찍 가야하는 수강생도 집에서 혼자라도 작품을 완성 시킬 수가 있었다.



가위로 자른 단면이 풀리지 않게 불로 그을려 시접처리를 하고, 리본에 바느질을 하여 일정한 간격의 주름을 만든다. 리본에 양면 테잎을 붙여 볼펜을 감싸고 바느질한 주름을 돌돌 말아주니 이쁜 카네이션 꽃이 달린 볼펜이 탄생한다. 어려운 공정은 아니지만 유미애 선생님이 짚어주는 세심한 팁대로 작업을 해야 볼펜에 예쁜 꽃이 핀다.



마지막으로 투명 비닐을 씌우고 리본까지 묶어주니 선물용으로 딱이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만도 서너군데 씌 다녀서 스승의 날 작은 선물 하나 하려고 해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네이션을 손에 든 주부들은 ‘아이들 학원 선생님께는 고마움을 표시할게 마땅치 않았는데... 스승의 날 선물하면 정말 딱이겠다.’라며 즐거워하 신다.







이번엔 리본핀이다. 긴머리를 전부 묶을 수 있는 큰 대핀과 아이들이 하면 이쁠 만한 깜찍한 애교핀을 만들었다. 머리가 짧은 분들이 많아선지 애교핀이 인기가 많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모두들 머리에 한번 꽂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핀하나 꼽았을 뿐인데, 다들 소녀로 돌아간 듯 하다.

## 문화배움터의 지킴이, 강 현 희!

“올해는 절대 안할거야!!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문화배움터를 지켰다. 2008년에는 부녀회 서기로 문화배움터 사업을 맡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던 강현희씨!

올해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는 마을사업에 대한 열정은 가득했지만 실무적인 사업운영 등을 경험이 없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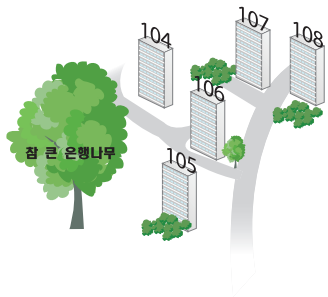
그래서 부녀회 활동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은행주공 아파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강현희씨의 존재는 너무도 클 수 밖에 없다.

“몰라 몰라 알아서들 해!!” 하시지만 벽화작업이 있는 날에는 아픈 몸에도 밥과 반찬을 풍성히 준비해와 작가들과 운영위원회원들의 주린 배를 든든히 해주시곤 한다.

간간한 듯 하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손길로 문화배움터를 챙기는 강현희씨!

그녀가 있어 은행주공에 문화배움터는 계속 될 것이다.





## 참 큰 은행나무 동 104~108동

105동 뒷편의 300년된 은행나무!  
멀리서도 이 나무를 보고 찾아왔다고  
해서 은행동이란 이름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는 나무이다.

여러 그루의 나무가 엮여져 거대한  
연리목인 이 은행나무를 따서  
참 큰 은행나무 동이라고 이름지었다.



참큰은행나무동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300년된 은행나무



108동 계단 옆에 핀  
사위질빵



끝검은말매미충

초음파 영역대로  
소리를 낸다.



참큰 은행나무 아래 핀  
먹물버섯

코프린 독성이 있어  
알콜 분해를  
방해한다.



광대노린재의  
약충



가죽나무  
누룽지 냄새가 난다.



물박달나무  
극상림에 속한다.



자작나무  
결혼식할때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밝히는 것을 화촉을 밝힌다고 한다.



108동 넘어가는 오솔길 은사시나무  
은행양나무와 사시나무의 교배종.  
흰빛이 도는 수피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나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개발된 속  
성수로 나이트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자란다.  
가벼운 바람에도 잎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사시  
나무 떨 듯 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보리수  
석가모니가 해탈한 나무는  
보리수가 아닌 반얀나무



106동 옆 감나무



까마중





107동 옆 계수나무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 때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계수나무.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마리'에 나오는 계수나무는 중국의 계수나무로 수정과에 사용하는 계피가루를 내는 나무이고 우리나라의 계수나무는 많은 잎이 둥글둥글한 일본에서 들어온 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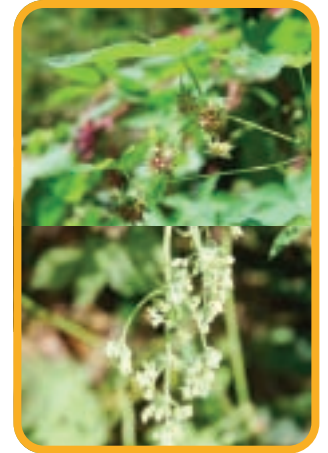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1ha 도시면적 68톤을 흡착하여 가로수로 많이 쓰인다. 봄에 날리는 솜털을 플라타너스의 소행이라고 오해하지만 봄에 날리는 솜털의 주인공은 은사시나무와 버드나무의 솜털이다.



106동 길 건너에 핀 미국자리공

독초이므로 먹어서는 안된다.



한삼덩굴의 암꽃과 수꽃



향나무

향나무의 열매는 새들의 만찬이 된다. 새들의 위장을 통과해야 발아가 잘되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고 할 수 있다.



107동 옆 서양측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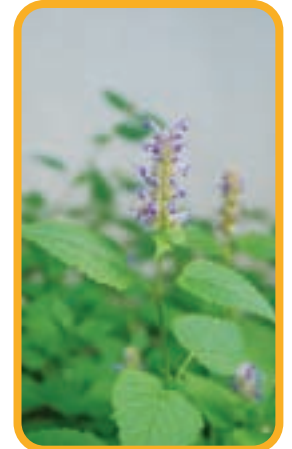
106동 옆 음나무

보통 엄나무라고 한다.



106동 뒤 등나무

같은 칩나무를 등은 등나무를 뜻하는데, 칩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만나면 배배 꼬인 타래를 풀수 없다는 데서 서로 만나면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뜻의 '갈등'의 유래라고 한다.



105동 뒤 배초향(방아)

매운탕이나 추어탕에 들어가 특유의 향을 낸다

# 결을대다

- 01 결을대다
- 02 어린이밴드
- 03 어린이풍물
- 04 It 사람 (yellow) - 이경진
- 05 새웃는동 (109동, 111~117동)





## 결을대다

결을 대다 - 나무, 살갓 따위의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결이라 부르며, 서로의 결을 마주하여 달게 한 모습을 말한다.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오랜 세월 함께 결에서 자라다가  
결국엔 서로의 결이 맞닿아  
온기를 나누고 하나가 되듯이  
은행주공이라는 터 안에 거주하는 이들도  
그곳에서 삶의 결을 대고 그 온기를 나눈다.

하지만 같은 터에 산다고 해서  
모두 삶의 결을 나누고 사는 것은 아닐게다.

함께 한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을 발견할 때,  
나와는 다른 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결을 나누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서  
배어나는 따뜻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삭막한 아파트 콘크리트를 뚫고  
은행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따뜻한 삶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 어린이 밴드

풀장환상으로 향하는 길 달큰한 계수나무 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  
머릿 속에 솜사탕이 한가득이다.  
계수나무의 솜사탕내 가득 밴 향기에 실려  
어디선가 귀익은 가요의 리듬이 귓가를 맴돈다.

참여자 드럼-정승우(은행초6), 일렉기타-박성빈(은행초5), 보컬-조은선(은행초6), 키보드-권은정(은행초5)



이도희 선생님은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서 어린이밴드와 성인 기타반을 지도하신다. 수진동성당 밴드 등을 지도하고 계시며 드럼, 건반, 베이스, 기타 등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실력과 강사다.

은행주공 마을 축제를 앞두고 풀장환상 밴드실에는 어린이밴드의 공연 연습이 한참이다.

“무조건 ~ 무조건 이야~~!!”  
어른들의 노래방 애창곡 1순위라는 무조건을 구성지게 부르는 보컬은 뜻 밖에 여학생이었다.

은선이는 원래 베이스 기타 담당이었는데, 공연날짜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보컬하는 친구가 자꾸 안나오는 바람에 보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대타!! 그런데 남자아이 못지 않게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  
베이스를 치는 은선이의 모습도 어울리지만 웬지 축제가 끝나도 보컬은 그대로 은선이가 맡게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와~ 드럼을 맡은 승우의 실력은 상당했다.

키보드 담당 은정이의 경우 원래 피아노를 쳤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본기가 확신했다.

은정이는 오늘 친구 생일에 초대 받았지만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연습을 하러 왔다고 한다.

평소엔 무척 개구쟁이들 이라는데 공연이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 이어 2009년에도 풍물반 강의를 맡으신 김순종 선생님은 풍물굿패 우리마당 소속이다. 풍물굿패 우리마당은 자랑스런 민족 유산인 풍물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지역 사회에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하고 있다.



“오셨어요? 오랫동안이네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김순종 선생님의 표정에서 2008년 문화배움터 때 풀장, 교실, 학교 운동장 등 이리저리 장소를 옮기며 수업하실 때의 모습보다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한참 말 안 듣는 나이의 개구쟁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다.

갈 길이 멀어보이는 아이들 ... 하지만 이 또래 아이들의 집중력이란 너무도 짧은 것이어서 악기가 뚫어져라 쿵쿵쿵 열심모드였다가도 금새 또 조잘조잘 웅성웅성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악기들은 어느새 시끄러운 소음 제조기로 변신한다. 그러나 김순종 선생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곧 있으면 은행주공 마을축제 무대에도 서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기다리면 어느 순간 박자가 맞아들어가고 각자 소리내던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학교다니랴, 학원다니랴, 어른들 보다 바쁜 아이들!! 이 시간 만큼은 악기를 힘껏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풀어본다.



때론 박자도 틀리고 그로인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김순종 선생님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아~ 사진찍는 언니다!!! 낯익은 얼굴이다. 언니 또 사진 찍으러 왔어요? 여름방학특강 클레이 아트 시간에 아무진 솜씨를 보여줬던 수민이의 손엔 장구채가 들려있다. 이어서~ 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는 한솔이! 한솔이는 작년에도 풍물반에서 꿩과리를 담 당했었다. 그새 한뼘 쯤 키가 자란 한솔이는 이제는 꽤 의젓해보인다.



“언니~ 이 노트 뭐예요?”  
슬레이트가 그려져 있는 내 노트가 특이했던걸까?  
아님 그 안에 자기에 관해 무슨 이야기라도 써있는지 궁금했던걸까?  
유진이는 내 노트가 보고 싶다며 노트를 집어든다.  
그런데 노트를 잡는 법이 특이하다.  
“저 장구를 치다 보니깐 노트도 이렇게 잡아요!!”



“다른 악기도 있는데 왜 장구를 선택했니?”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아이들은 솔직하다.  
“머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깐 재밌긴 해요!!”  
장구를 치는 아이들의 손은 카메라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홀로 북을 치는 현욱이는 어떨까?  
“나 꿩과리 좀 쳐보자!!!” 하며 한솔이의 꿩과리를 탐내본다.  
“북은 나 혼자 하니깐 틀리면 티가 팍 나요!!”  
그런데 막상 꿩과리를 쳐보니 쉽지 않은 듯, 슬그머니 꿩과리를 내려놓고 다시 북채를 든다.

“완전 무거워요!! 풍물반 하려면 힘이 되게 쎄야 한다니깐요!!”  
자기 덩치만한 악기를 들고 은행주공 숲 속 오솔길을 가로지르는 아이들!

“찰칵!!”

“어! 전 초상권 있어요!!” 동현이가 소리친다.  
바로 “알았어!! 안찍을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카메라를 돌리니  
“아니 머....저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봐요!!” 하더니  
이내 다시 찍어달라고 포즈를 잡아준다.







이번 은행주공 마을축제 때에는 영남사물놀이와 짝쇠놀음을 공연할 예정이다.

영남사물놀이는 영남지방에서 치는 가락을 모아 사물 놀이 작품으로 만든 것으로 길군악 (흐트러진 대열을 정렬하기 위한 군악. 이후에는 놀이의 형태로 변화된 것) → 반길군악 → 다드래기 (다듬이질 소리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 별달거리 → (뒷배기(삼채) → 쌍진풀이 순으로 연주한다.

짝쇠놀음은 웃다리사물놀이에서 나오는 가락으로 암쇠와 숫쇠가 가락을 주고 받으며 장구는 쇠가락에 맞게 다양하고 화려하게 연주한다.

“아~~짝쇠 너무 어려워요!!”

장구치는 아이들은 하나 같이 짝쇠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장구의 매력이 흠뻑 묻어나기도 한다.

작년보다 고학년이 많고 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은행주공 풍물반!!

짝쇠놀음에 흥이 더해진다면 올해도 멋진 공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풍물반은 리드미컬한 기승전결 속에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흥과 맛을 발견해내는 사물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아이들이 북, 장구, 팽과리, 징의 울림 속에서 배워가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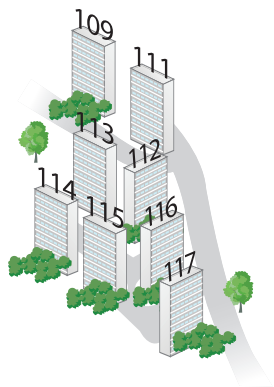
## 이 경 진

“우리 내년에도 해요!!”  
“하자! 하자! 자기야!”  
“언니들 우리 해요!!”

축제가 끝나고 운영위원 모두가 지친 가운데도 내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열혈 운영위원 이경진씨!

이경진씨는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나만의 책만들기’ 강의로 인연을 맺어 2009년에는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름방학 특강 참여자 접수를 맡아 규정된 인원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접수하지 못한 이들의 불만을 받아내면서 속상했던 적도 있지만 특유의 발랄함과 긍정적 성격은 어느 자리에서나 빛을 발한다.



## 새 웃는 동 109, 111~117동

넓은 활엽수 그늘에 열매와 곤충이 많아 곤충박이, 청딱따구리, 뱀새(붉은머리 오목눈이) 등의 새들이 많이 모여서 새 웃는 동이라 이름지어졌다.



**쇠박새**  
쇠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  
박새 무리 중 작은 박새라는 뜻



113동\_ 회화나무



115동 옆\_ 뽕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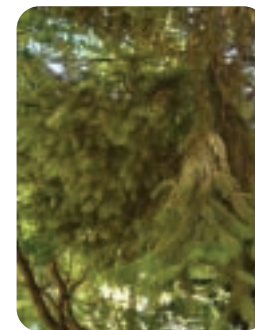
109동 파이프관을 따라 핀  
**동근잎나팔꽃(morning glory)**  
꽃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분꽃 (four o'clock)**  
나팔꽃과 반대로 꽃이  
저녁에 피고 아침에 진다.



109동 뒤\_ 전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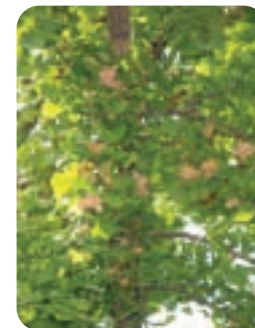
독일가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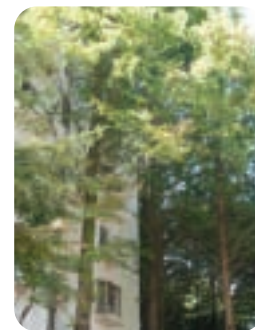
과꽃



느티나무



은행이 주렁주렁 열린  
**은행나무**  
겉씨 식물이라 침엽수이며,  
암나무는 옆으로 크고,  
숫나무는 위로 길다



메타세쿼이아



흰테꽃구름버섯



미국자리공





111동 옆 산초나무  
추어탕에 넣는 재료로 쓰인다.



불두화



앵두나무



족도리풀



116동 앞 왼쪽에 감나무



116동 앞 오른쪽 무화과



112동 앞 왼쪽 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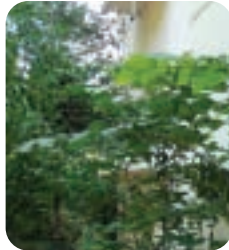
112동 앞 오른쪽 나팔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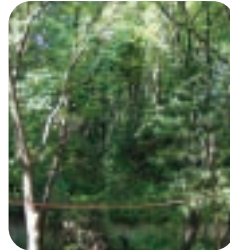
고마리  
축사옆 토랑에 많이 피며,  
수질정화에 좋다



살구  
살구나무에 개를 매어놓으면 개가 죽는 다고 하여 살구라  
고 이름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살구가 잘되면 염병이 안든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좋으며 열매가 맺기 전에는  
매실과 구분이 힘들다.



박태기나무



회화나무  
학자의 기개를 상징한다고  
하여 학자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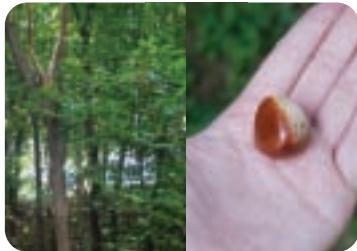
112동 앞 화분에 쪽



섬초롱꽃



백일홍



밤나무  
밤 송이에 밤이 3개 들어 3정승을 상징한  
다. 밤껍질에 탄닌이 많아 색이 짙고 오래  
남아있어 조상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  
어 제사상에 올라간다.



다릅나무  
나무 껍질이 말리는 특성이 있으며 공  
예에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나무  
의 겉과 속 즉 심재와 변재가 달라서  
목공예를 해놓으면 아름답기 때문이다.



주름조개풀



삼잎국화(루드베키아)



금낭화



맥문동

# 상처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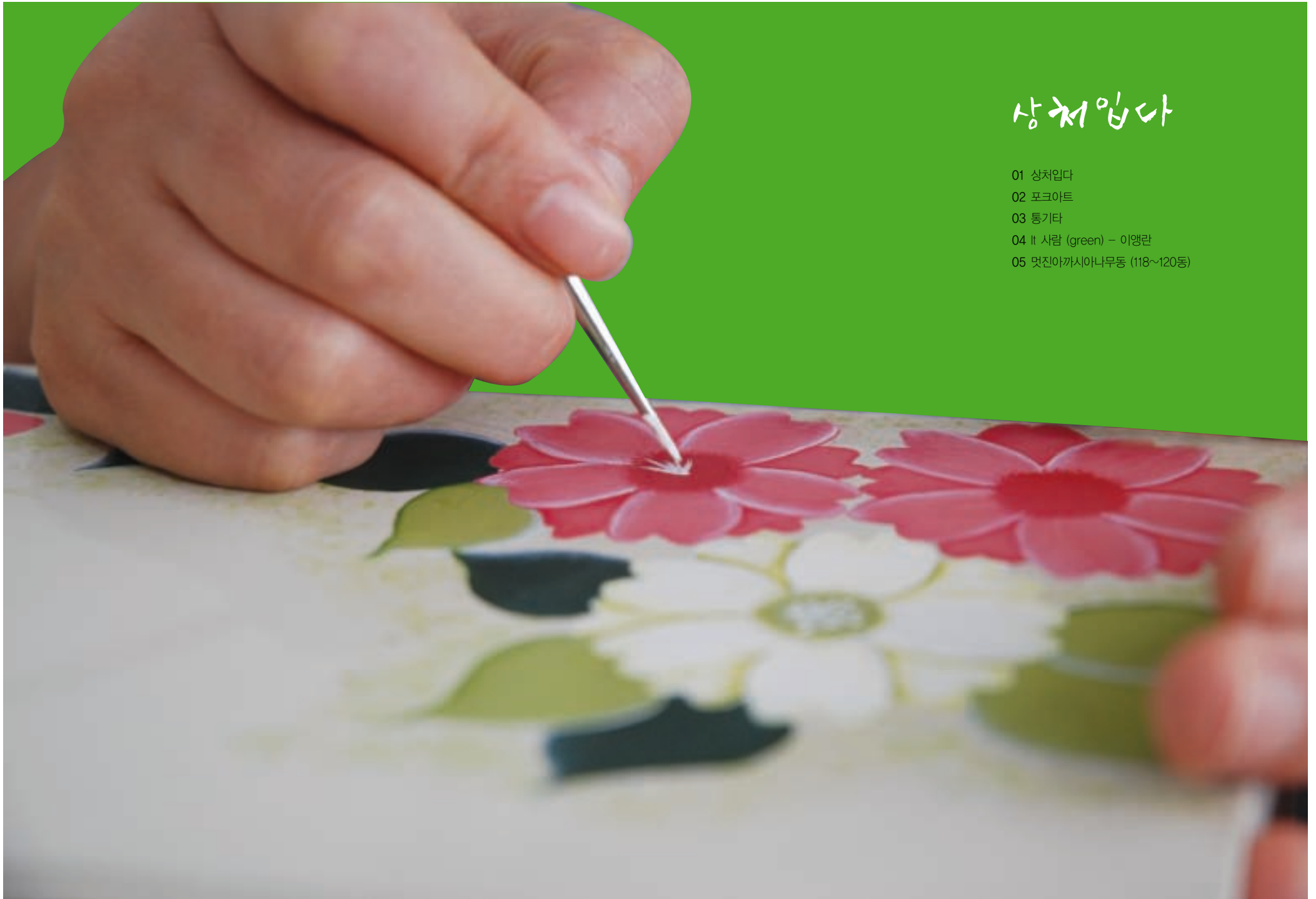
01 상처입다

02 포크아트

03 통기타

04 It 사람 (green) - 이앵란

05 멋진아까시아나무동 (118~120동)





## 상처입다

상처- 다쳐서 부상은 입은 자리 혹은 피해를 입은 흔적을 말한다.

두개의 독립된 개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상처가 존재한다.

마주한 두 줄기와 가지는 결을 대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껴안다 보면  
종국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상처 입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액을 나누게 되고, 상처입고 딱지가 지는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서로의 의미를 알게 된다.

나와 다른 이와의 소통,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상처입는 과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만 간직하지 않고, 더 큰 소통의 한 과정으로 이해  
한다면, 상처입은 채 고사하지 않고 딱지가 지고 새살이 돋아 하나의 나무가 되는  
연리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

상처!  
그것은 더 큰 이해와 소통을 위한 과정이 된다.





## 포크아트

참여자 박은진(118동), 이주은(118동), 박상진(119동), 고은주(111동), 이영란(103동)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2층 문화사랑방에서는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포크아트 강좌가 열린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8월!!

마을버스를 타면 더 빨리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쏟아지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은행주공 108동 뒤 숲길로 돌아 가기로 했다.

오솔길에 들어서자 여름의 태양빛에 눈도 뜰 수 없이 밝던 세상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은사시나무의 잎사귀들이 작렬하는 햇빛을 걸러 온화한 모습으로 바

뀌주기 때문이다. 어느 틈에 살랑 바람도 불어와 이마의 땀도 닦아간다. 은행주공의 숲길은 뜨거운 여름엔 더욱 걷고 싶어지는 길이다.

오솔길에 산들바람을 더 느끼고 싶어 천천히 걸었더니 10시가 훌쩍 넘어버렸다. 미리 연락은 했지만 수업에 방해가 될까 조심스레 문화사랑방의 문을 열었다. 북적북적한 강의실을 연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인원이 단출했다.



현재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은 5명 정도, 하지만 처음에는 12명 정원을 꽉 채웠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녀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모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기존 참여인원도 줄어들었고, 강사와 문화배움터 회원들 모두 각각 일정이 맞지 않으면서 그 모두를 조율해야 했던 반장 박은진씨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다.

다행히 지금은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갈등은 꽤 컸었던 듯 보인다. 참여자 대부분이 주부이다 보니 일정을 다시 맞추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애초 모집 당시 강좌가 열리던 부녀회 사무실 근처에 사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106동 근처의 주민자치센터는 은행주공 아파트의 외곽쪽에 가깝게 위치한 장소이다 보니 새로 옮긴 강의 장소로 오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 참여자들이 많았다. 언뜻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은행주공 아파트가 꽤 커다란 단지라서 걸어서 수업장소에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꽤 멀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들에게는 어렵게 틈을 내서 갖는 개인 시간이라 가까운 장소에서 듣던 강좌가 이동하게 되자 이탈자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원이 줄어서 일까? 아무래도 한사람 한 사람에게 가는 강사의 손길이 더 잦아서 인지 참여자들의 솜씨들이 처음 붓을 잡아본 이들이라고 하기엔 솜씨들이 굉장하다.





포크아트 수업 시간은 다른 수업에 비해 굉장히 정적이다.

가느다란 붓으로 가구나 소품에 그림을 덧입혀 멋스런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라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캔버스나 종이 위가 아닐 뿐, 화가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작품에 몰입 하면 할수록 더 이쁜 꽃이, 더 섬세한 나무가 피어난다.

그래서 인지 포크아트 강사 한정순 선생님은 외모도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하다. 한정순 선생님은 은행동 주민으로 개인작업 활동을 하면서 송파

중학교 CA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2007 풀장환상 때 자원봉사로 포크아트 강좌를 진행하신 것을 계기로 은행동 공 문화배움터와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

**포크 아트**(Folk art)는 서양권의 민속예술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대중 또는 서민이 이용하는 소박한 생활미술을 말한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유럽의 서민계층에서 가구나 일상용품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부착력이 강하여 모든 바탕 재료에 착색할 수 있고 건조가 빠른 아크릴 물감의 개발로 누구나 쉽게 즐기며 배울 수 있게 되어 더욱 다가가기 쉬운 생활미술로 자리잡았다.

포크아트의 매력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 생활의 작은 물건에서부터 가구, 주방용품에까지 특별한 소재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일상 속에서 손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미술이 된다.

포크아트로 주부들의 일상 생활용품들이 예술 표현의 소재가 된다.

오늘은 각티슈 케이스가 캔버스가 되었다. 평범하게 두고 쓰는 각티슈, 그 위에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덮개를 덮어주는 것이다. 휴지를 뽑아 쓸 때 마다 향기가 날 것 같은 화려한 꽃들이 은행주공 주부들의 손 끝에서 한송이 한송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

꽃잎에 명암을 줄 때 만든 숨도 쉬면 안될 것 같은 긴장감이 돈다.

꽃잎 하나가 완성되면 그제서야 휴~우 하고 깊은 숨을 몰아내쉬며 휴지 케이스를 잡은 손을 멀리 들어 꽃잎의 상태를 점검한다.

진지한 그들의 눈빛에서 예술가의 포스가 느껴진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리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다 보니 하루에 완성품을 볼 수는 없었다.

주 1회 수업이다 보니 한개의 작품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2주 내지는 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다 보니 그 애정이 남다른 당연한 일이다.





## 다시 찾은 포크아트 수업 시간!!

장소는 풀장환상이다.

그 동안 사랑마루 팀 작가들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원들이 열심히 꾸며놓은 새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진행되던 강좌들은 '풀장환상'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참여자들의 의사를 물어 하나 둘 씩 풀장으로 그 터를 옮기고 있다.

무더운 여름 선풍기 두 대가 돌아가는 조출한 공간일 뿐이지만 내 손으로 만든 우리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에어컨이 뽕뽕하게 나오던 빌려쓰는 공간보다 맘편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어 보인다.

조금 더 욕심내어 진도를 내리는 참여자들은 수업이 끝나도 편하게 더 작업을 할 수 있

수도 있고, 집도 가까우니 다른 강좌가 없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마무리하지 못한 작품을 들고 와서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공방이 된다. 집에서 혼자 해도 되겠지만 함께 해야 조언도 얻고, 경쟁도 되어 작품이 완성되는 속도도, 작품의 질도 높아지고, 함께 작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서로의 벽을 허물어주는 소통의 통로가 된다.

풀장에 찾아오는 문화배움터 강좌 참여자 중에는 손에 멋진 가방이 들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은씨의 가방도 조각조각 천을 이어붙인 퀼트 작품!!

오늘 작업하는 티박스 포크아트 작품 옆에 올려진 모습을 보니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 이상의 즐거움을 준다.







## 통기타반

은행주공에서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 남짓 한 큰길에 위치한 건물 2층 이도희 기타교실에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통기타반 수업이 있다. 부녀회 사무실을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지 못하면서 악기를 사용하는 강좌들은 수업 장소를 구하는 일이 타 강좌보다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도희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린이밴드와 성인통기타반은 이도희 선생님의 개인연습실을 강의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부녀회 사무실에서 진행할때는 남성참여자도 비롯해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두명씩 인원이 줄면서 열의로 가득찬 3명만이 통기타반을 지키게 되었다.

참여자 유순덕(123동), 조철욱(110동), 곽지수(111동)



간판은 이도희 기타연습실이 맞는데 연습실 안은 언뜻 비디오대여점처럼 악기보다 비디오와 DVD가 더 많다.

“영화랑 음악은 연관이 많아요!! 감성을 주거든요!!” 하며 영화의 명장면에 등장한 음악들을 나열하시는 이도희 선생님.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 각양각색의 강좌들이 있듯이 예술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인가보다.



기타소리가 들려오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유순덕, 조철욱씨 두 분이 ABBA의 'I HAVE A DREAM' 를 열심히 연습 중이시다. 곽지수씨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지수씨를 찍어야 하는데...지수씨는 아가씨라 이쁜데...아줌마들만 있어서 어찌지?”

하시는 조철욱씨! 하지만 웃음뽀 얼굴로 기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에서 소녀 같은 감성이 엿보인다.

은행주공 마을 축제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 세명 모두 기초부터 배우신 분들이라는데 겨우 20차시의 수업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실력을 보니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두 분의 실력은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였다.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거지!! 음계 기초부터 시작해서 50대 아줌마가 이걸 치니깐...득음을 한거죠!!” 조칠옥씨는 요즘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줘

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신다.

“아들이 군대에서 기타를 배워와서 같이 나랑 같이 연주해요!!”

이거 팝송이라 무대에서 가사 틀릴까봐 아들이 팝송 가사 토도 달아주고해서 차타고 다니면서도 외워요!!”

무대에 함께 설 보컬을 구하지 못해 공연은 기타를 치며 세명이 직접 노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 내가 장윤정 노래는 잘하는데...이건 잘 될지 몰라!!” 하시며 유순덕씨가 목청을 가다듬는다.

안하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그 동안 만약을 위해 대비해오셨는지 완벽하게 노래를 소화해 내신다. 젊은 사람들도 따라부르기 힘든 팝송을 멋지게 소화해내시는 두분! 박수가 절로 나온다. 노래 가사 처럼 꿈이 있는 두 분의 노래라 더욱 멋졌다. 아...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좁은 연습실에서는 꼭들어찬 음악이지만 넓은 야외 무대에 오르기에 세명은 너무 아쉬웠다.

이도희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듯, 조금 있으면 수진동 성당 밴드가 은행주공 마을 축제 협연을 위해 함께 연습하러 오신다고 한다.

건반 최현경, 드럼 이상희, 베이스 이승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수진동 성당 밴드 또한 이도희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중 최현경씨와 이상희씨는 음악학원 선생님이시다. 음악학원 선생님이라니 더 배울게 없어보였지만 밴드에서의 건반은 클래식 피아노와 연주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한다. 수진동 성당 밴드처럼 경험 있는 밴드가 뒤를 지켜주니 은행주공 통기타반의 연주가 더 풍성하게 느껴졌다. 마을축제에서의 멋진 무대가 기대된다.



이 앵 란

“와~ 다 이렇게 정리한거야?”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진다.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회계를 맡은 이앵란씨!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보는 일은 처음이지만 꼼꼼한 이앵란씨는 작은 영수증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일일이 종이에 붙여놓고 내역을 메모해 놓는 등 깔끔하게 회계처리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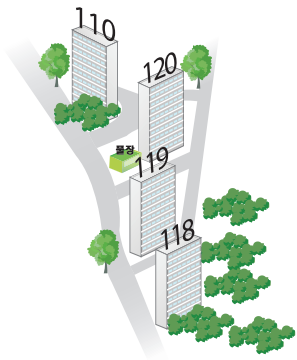
1년 가까이 되는 긴 사업 기간 동안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없으면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덕분에 그 머리 아프다는 정산 작업이 깔끔하게 끝이 났다.

단아한 외모 만큼이나 깔끔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이앵란씨!

섬세하고 여린 성격 때문에 문화배움터 운영위원을 하면서 주위의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다. “좋은 일로 시작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면 속상해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서 이런 말을 듣나 싫어요!!” 은행주공 문화제를 앞두고 많이 힘들셨는지 한숨을 쉬시던 이앵란씨!

문화제가 끝나면 운영위원을 관두시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문화제가 무사히 끝나자 세밀화와 포크아트 시간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마을 생태 벽화 작업에도 참여하여 작은 부분이지만 멋지게 은행주공의 길목에 그녀의 작품을 남겼다.





## 멋진 아까시나무 동

110동, 풀장 118~120동

은행주공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커다란 아까시나무가 있어  
멋진 아까시나무동으로 이름 붙여졌다.

### 120동 뒷산 오솔길 옆 큰 아까시나무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나무의 진짜 이름. 북아메리카 원산지이며 다른 나무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살림녹화와 땀감용으로 많이 심었음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꿀도 많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아 30~40년 밖에 살지 못한다.





부채날개매미충 (성충)



부채날개매미충 (약충)



120동 뒷마당의 양버즘나무  
10년전 주차장 확대를 위해 잘려  
졌었으나 죽은 줄 만 알았던 나무  
에서 결가지가 나와 신비로운 생명  
력을 느끼게 해준다.



119동 은행중학교 후문 올라가는 길,  
수수꽃다리

영어이름은 라일락, 프랑스 이름은  
리라. 가지 끝에 피는 꽃이 수수꽃  
대를 닮았다 하여 수수꽃다리라고  
부른다. 5월이 되면 작은 바람에도  
아파트 전체에 향기가 퍼진다.



117동 누리장나무  
원기소냄새가 난다.



쪽동백



산수유



밤나무



개암나무



조릿대로 만든 방아깨비



두충나무



# 인정하다

- 01 인정하다
- 02 나만의 책만들기
- 03 It 사람 (Blue) - 고은주
- 04 딱따구리 둥지동 (121~123동)



## 인정하다

인정(認定)- 알인, 정할 정  
상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옳다고 믿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껴 상처입은 나뭇가지는  
그대로 고사해 버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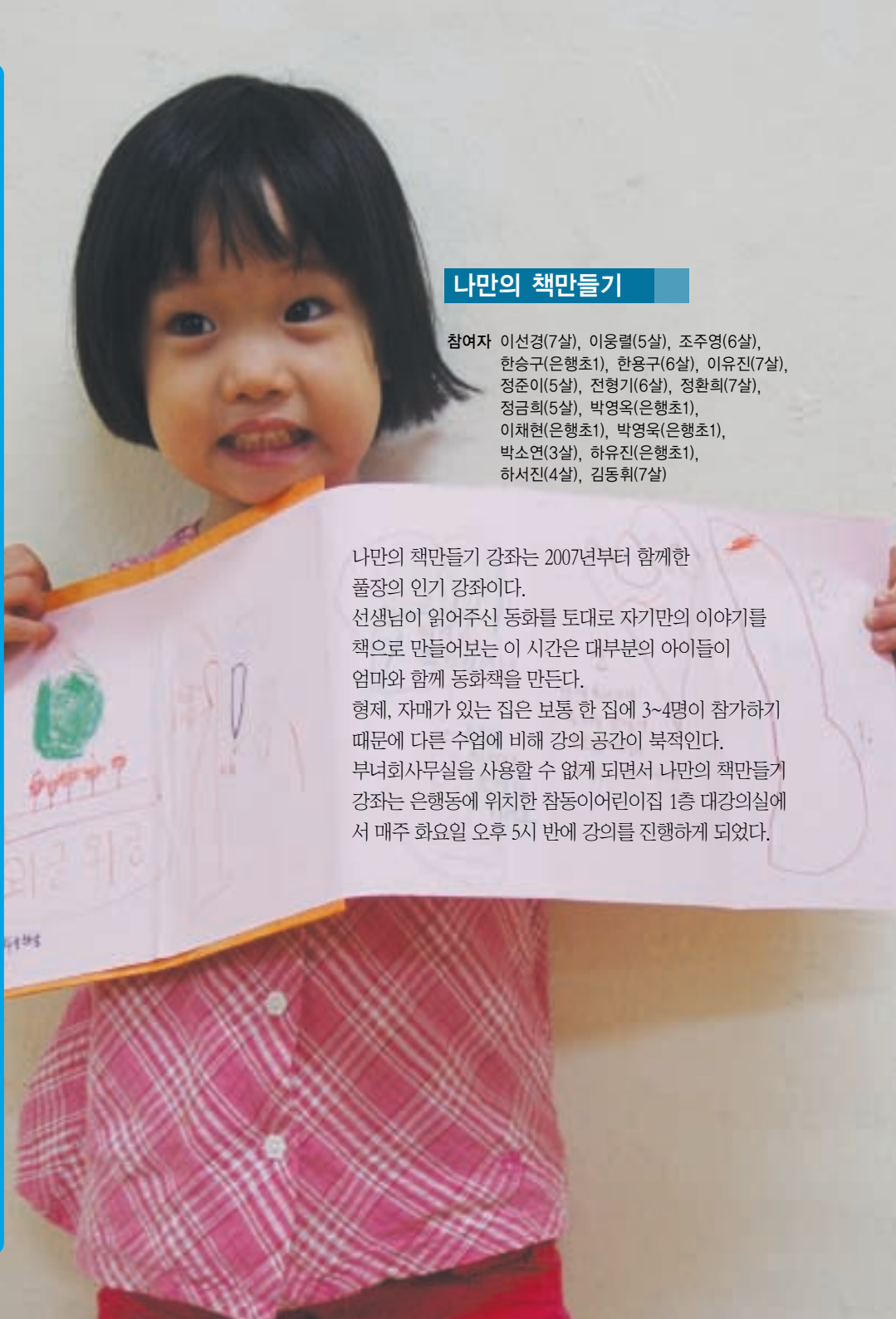
하지만 상처입는 중에도 서로를 인정하면  
비로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

상처입은 가지가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인정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양분을 나누고  
함께 껴안는 과정이 시작된다.







## 나만의 책만들기

**참여자** 이선경(7살), 이웅렬(5살), 조주영(6살),  
한승구(은행초1), 한용구(6살), 이유진(7살),  
정준이(5살), 전형기(6살), 정환희(7살),  
정금희(5살), 박영옥(은행초1),  
이채현(은행초1), 박영옥(은행초1),  
박소연(3살), 하유진(은행초1),  
하서진(4살), 김동휘(7살)

나만의 책만들기 강좌는 2007년부터 함께한  
풀장의 인기 강좌이다.

선생님이 읽어주신 동화를 토대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는 이 시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동화책을 만든다.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은 보통 한 집에 3~4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 비해 강의 공간이 북적인다.

부녀회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나만의 책만들기  
강좌는 은행동에 위치한 참동아어린이집 1층 대강의실에  
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반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름은 최정희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토마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토마토쌤! 토마토쌤!**

시도때도 없이 편하게 선생님을 부르는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빛  
난다. 3년째 인기강좌를 이끌고 있는 최정희 선생님은 남한산초등학교의 사서  
교사이자 은행주공 주민이기하다.

학교일정 만으로도 바쁜 최정희 선생님!

하지만 올해도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시간을 내셨  
다.

“오늘은 무슨 동화 읽어주실 거예요?”

최정희 선생님이 동화책을 펴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면 부산했던 아이들의 눈빛  
이 반짝반짝 빛난다.

마치 성우마냥 여우 목소리, 토끼목소리, 마녀목소리로 자유자재로 변하는 토  
마토선생님의 목소리에 동화는 한층 더 흥미롭다.

나만의 책만들기 수업은 선생님이 선정한 동화를 함께 읽고, 그 동화를 토대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엮어 새로운 동화를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북아트를 접목하여 팝업북, 아코디  
언북, 쿼트북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해주는 작업까지  
보태어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사랑받는 수업이다.

## 보글보글 마법 수프에 무엇을 넣을까?

커다란 모자를 쓰고 코가 큰 마녀가 만든 수프에는 개구리도 머리카락도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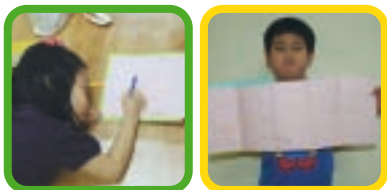
그러면 아이들이 만든 마법수프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



환희가 만든 수프에는 달걀과 파가 들어간다.

마녀의 수프보다는 맛있을 듯 하다.

그럼 환희의 마법수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줘요!!”

환희는 요즘 꿈에 나오는 무서운 괴물 때문에 잠이 드는게 무섭다. 하지만 오늘 환희는 집에 가서 달걀과 파가 들어간 수프를 먹고 잘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쁜 꿈을 꾸지 않을 거라고 한다.

주영이가 만든 책에는 두가지 레서피가 들어있다. 하나는 키가 크는 수프 만드는 법, 다른 하나는 게임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수프를 만드는 법이 그것이다. 주영이의 요리책은 들어가는 재료보다는 만드는 조리법을 자세히 그려넣은 것이 특징이다.

유진이의 수프에는 사과, 포도 등의 과일과 생선, 오징어 등의 해산물, 그리고 애벌레가 들어간다. 유진이의 수프를 먹으면 이쁜 선생님이 된다고 한다.

현기의 수프에는 강아지꼬리털과, 구름, 소금, 눈이 들어간다. 꽤 구하기 힘든 이 재료들을 넣으면 어떤 수프가 완성되나 했더니 투명인간이 되는 수프란다.

아이들이 만든 요리책에는 아이들의 고민과 바램, 꿈 등이 담겨있다. 참동이어린이집의 강의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나만의 책만들기처럼 수강인원이 많은 강좌에 좋은 공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빌려쓰는 공간이며 은행주공아파트 밖에 있어 문화배움터 강좌가 열리는 의미



는 덜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만의 책만들기 아이들의 엄마들이 둘러 앉았다.

이정진씨가 말을 꺼낸다.

“풀장공사가 다 끝났는데... 아직 여기 빌린 기간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강의 공간을 옮길까요?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할까요?”

“풀장으로 가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엄마들은 모두 풀장을 택했다. 다음주부터는 풀장에서 아이들의 동화가 펼쳐진다.

풀장이 아이들로 가득 찼다. 가까운 곳에서 강좌가 열려서 인지 참동이 어린이 집에서 강의를 할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 모두 한자리에 앉기가 벅찼다. 풀장 책꽂이에 가득찬 동화책 틈에서 평소 좋아하던 ‘14마리 생쥐들’을 발견한 형기

“이것 좀 봐봐 줘 때문이래!!” 신이났다.

동화책을 빼보고 풀장 밖을 뛰어다니는 어린 동생들을 보며,  
“선생님 빨리 하고 싶어요!!” 하고 1학년 누나 채현이가 외친다.

“자~ 애들아!! 선생님이 캥거루 케이트 읽어줄게요!!” 토마토선생님의 말이 떨어



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순식간에 책상 앞으로 몰려와 나무 책상에 걸터 앉는다. 토마토 선생님이 완전히 아이들에게 포위당한 느낌이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말려도 보지만 조금이라도 동화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아이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캐거루 케이티의 주머니처럼 앞치마를 만들고 그 안에 넣고 싶은 물건들을 넣어보는 오늘의 책만들기! 동화를 들은 아이들은 주머니에 무엇을 넣을까 고민한다.



“주머니에 뭐있어?”하는 나의 질문에 환희는 “아직 비밀이에요!!” 하면서 베시시 웃고, 주영이는 “우리 엄마 주머니에 1,000원 있어요!!” 라고 말해 엄마의 주머니 사정을 모두에게 알린다.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하나 둘 씩 풀장 안으로 들어온다.

큰방은 이미 포화상태!!

웅렬이 엄마 이경진씨는 늦게 온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책꽂이에 꽂혀있던 동화책을 꺼고 동화를 읽어준다.



토마토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참가해서 일까?

이경진씨도 토마토 선생님 못지 않게 실감나게 동화를 읽으신다.

이경진씨가 동화를 읽자 옆에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기 시작했다.

‘엄마가 교사도 되는 수업’ 나만의 책만들기 수업이다.



## 고 은 주

“여기 강력본드 더 붙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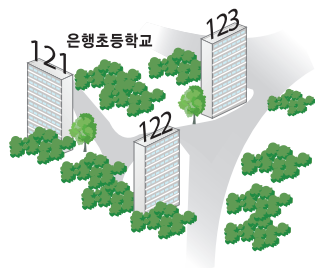
밴드실 방음작업에 한참인 운영위원회원들!! 그 중에서도 고은주씨의 프로주부 다운 꼼꼼함이 빛난다.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는 꼼꼼함과 철저함!! 이게 고은주씨의 매력이다.

이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엄마 수영장에 있어!!  
아니 아니 엄마 풀장 환상에 있다고!!!”

“우리 준석이는 수영장은 못 알아듣고 풀장환상이라니깐 알아들어!!!”

오늘 하루 고은주씨는 준석이 간식 챙기는 시간을 아껴 이웃의 아이들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밴드실 계란판과 씨름을 했다.

다음 사람과 바톤 터치를 하고 “내일 또 올게요!!” 하며 아이들을 챙기려 잔걸음을 재촉하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 딱따구리 동지동 121~123동

121동으로 올라가는 길 커다란 청딱따구리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오동나무가 있어  
딱따구리 동지 동으로 이름 붙여졌다.

현재 이 나무는 사라졌지만,  
풀장환상을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앞으로도  
딱따구리 동지 동으로 불리울 것이다.

하얀꽃이 탐스러운 목련



딱따구리 동지가 있던 오동나무는  
오래되어 쓰러질 위험이 있어 베어졌다.

하지만 그 곁에 오동나무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간 또다시 딱따구리가 찾아올  
커다란 오동나무로 자랐으면 소망해본다.



122동 뒷편\_메타세콰이아



계수나무



121동\_생강나무



121동\_생강나무 열매



# 서로안다

01 서로안다

02 한지공예

03 사진반

04 It 사람 (Navy) - 박은진

05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 서로안다

서로안다- 서로를 향해 팔을 벌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품 안에 있게 하는 모습

서로를 인정한 두 나무는 이제 비로소 서로에게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를 껴안게 된다.

서로를 보듬는 행위!  
이제 본격적인 연리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 한지공예

참여자 나유미(104동), 이금재(110동), 강정은(101동),  
전용애(120동), 이혜경(104동), 이상덕(106동)

한지공예 또한 작년에 이은 인기강좌!!  
하지만 강의 장소를 옮기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포크아트 수업과 같은 장소인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2층 문화사랑방에서 한지공예 수업이 진행된다.



한지공예 수업 시간은 포크아트에 비해 시끌벅적하다.

지난 해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많아서 서로 친하기도 하고 이제 실력들이 수준급이라 서로 더 잘하는 공정을 분업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대화를 해야 능률도 오르고 즐겁기 때문이다.

문화배움터에서 한지공예 강좌를 진행하시는 분은 용미자 선생님이다. 은행주공 주민이기도 한 용미자 선생님은 2년째 진행되는 강좌에 이제는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푸근한 이웃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한다.



“다음엔 우리 뭐해요? 아주 기다려 진다니깐!!”  
이금재씨는 벌써 다음 진도가 궁금하다.

한참 고민하시던 용미자 선생님이  
“우리 3단 화초장 들어갈까요?”  
“대신 무늬를 뽁뽁하게...!!” 하신다.

3단 화초장에 난이도 높은 무늬를 넣으면 정말 어려운 작업일 듯 하다. 하지만 다들 이제 그 정도 쫘은 해줘야 작업할 맛이 나는 듯!

“무늬는 뽁뽁야 이빠!!”  
하며 무늬 전문 이혜경씨가 의욕을 보인다.

초보 나유미씨는 곤란하기도 할만 한데...  
“난 선생님이 이빠하시니깐 걱정 안해요!!”  
“우리 3단 화초장 해요! 해요!!” 한다.

서로 서로 도우며 작업을 하니 진도도 한결 빠르고 작품의 질도 더 높다.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오늘 작품은 휴지 케이스란다.  
포크아트가 서양의 주부들이 즐기던 생활예술이라면, 한지공예는 동양 주부들의 생활 예술이다.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한지로 만드는 휴지케이스는 포크아트로 꾸미는 휴지케이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포크아트가 선명한 붓터치로 완성된 그림과 매끈한 외관의 광택이 매력이라면, 한지공예는 한지 특유의 은은한 색감과 거친 질감이 매력이다.

오늘의 작품으로 각휴지 케이스를 선택한 분도 있고 둥근 휴지케이스를 선택한 분도 있다. 꾸미는 방법도 무늬를 파서 붙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락스로 탈색을 하는 공정을 선택한 분도 있다. 그래서 같은 휴지케이스라도 전혀 다른 작품이 완성되기도 한다.

손이 빠른 이금재씨는 이미 케이스의 몸통을 다 붙이고 휴지를 꺼내쓰는 둥그란 부분이 있는 뚜껑까지 자르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런데 용미자 선생님이 만드신 뚜껑은 둥그란 부분까지 한지로 덮혀있다.  
“아!! 이 둥그라미 마른 다음에 칼로 자르는거야? 나 벌써 잘랐는데...”  
“에효 난 빠르게 탈이야!!” 하자,  
“그럼 난 느리게 다행이야!!” 하며 이상덕씨가 까르르 웃으신다.

그렇다면 떡살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색색깔 한지 옆에 곱스럽게 놓여있는 떡살은 한지 공예시간과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떡살에 조각된 정교한 문양에 점토를 찍어 내면 선명한 무늬가 찍혀나온다. 이렇게 만든 무늬를 바탕에 붙이고 그 위에 한지를 팽팽히 바른 후 풀 묻힌 붓으로 한지를 한 번 더 적셔준다. 조금 뒤 풀이 마르면 한지 위에 점토에 찍었던 무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위에 락스를 희석한 물을 군데 군데 거칠게 문질러 탈색을 한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한지가 아니라 마치 청동으로 만든 듯한 무게감 있는 질감이 느껴진다.

섬세하게 무늬를 파내고 뒷편에 알록달록한 한지를 배치하여 그 무늬를 드러내는 기존의 기법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느낌을 주었다.



작품을 만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 비교적 다작을 만드셨을 한지공예반!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에 출품할 작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듯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탐나는 작품들을 주위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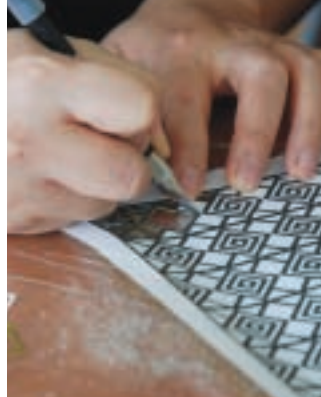
이웃이나 친척들이 너무 탐을 내서 선물로 주다 보니 출품할 작품이 몇점 없다는 분들이 많았다.

이번 모란축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라는 이금재씨는 규모가 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으나 따님의 결혼 혼수와 시댁 어르신들의 생신 선물로 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전시 품목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남주지 말아야겠어!!” 라고들 입을 모으시지만 넉넉한 인심의 한지공예반 참여자들은 이미 고마운 지인, 아이들 선생님, 시집간 딸에게 선물할 용도로 자비를 들여 추가 재료를 구입해 놓으셨다.

한지공예반도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가 끝난 후에는 풀장으로 수업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겨울엔 풀장의 뜨끈한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한지에 풀을 바르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오를 것이다.

풀장을 찾는 이들이 한무리 더 늘어났다.  
추운 겨울 풀장에서 풍겨오는 한지와 풀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벌써부터 나는 것 같다.







## 포토줍마 \_사진반

은행주공 사진반은 포토줍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줍마들의 사진반이라는 뜻으로 작년 문화배움터에서 사진반이 결성된 후 꾸준히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기존의 회원들이 DSLR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 똑딱이 카메라를 배우러 온 회원들은 슬그머니 한 두 분씩 모임을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강사도 카메라 종류는 관계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배우러 오는 입장에서는 커다란 카메라에 주눅이 들었던 모양이다.

참여자 김순희(104동), 노은실(104동), 송정란(118동), 이상덕(106동), 이정자(111동)



포토줍마 회원들이 수업을 위해 문화배움터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장 김순희 씨 댁을 방문했다.

“우리는 먹고 시작해요!!!”

포토줍마는 출사를 한 뒤에 부녀회 사무실에 모여 컴퓨터로 사진을 띄워놓고 리뷰하는 과정이 수업에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부녀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서로의 사진을 리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온라인 카페도 있긴 했지만 이론 수업 등을 진행할 때도 컴퓨터가 있는 장소는 절실했다.

이때 화끈한 우리의 순희 회장님,

“우리 집에서 합시다!!”라고 말을 꺼냈고, 그 뒤로 출사를 나가는 날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10시 김순희씨 댁에서 모임을 갖는다.

포토줍마의 리뷰와 이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1차로는 떡과 과일 차를 마시며 그날의 뉴스 이야기가 시작된다. 요즘 그닥 훈훈한 뉴스가 없다보니 삭막해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뉴스를 소재로 삼아 사회적인 이야기와 생활의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의 사진 리뷰를 시작한다. 아이들 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웅기

종기 모여 지난 시간 촬영한 사진을 리뷰하고 이론 수업을 시작한다. 포토줍마의 사진 속에는 은행주공 아파트와 그 안의 아이들, 노인들 등 우리의 이웃들이 담겨있다.

딱딱해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포토줍마!!

작년에 이어 포토줍마를 맡고 있는 곽대현 강사는 미디어공동체 늘봄 소속이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아줌마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곽대현 선생님!



아들 뺨의 선생님이지만 포토줍마 회원들은 깍뚝이 선생님이 모시며 수업을 받고 있다. '깍뚝'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친숙한 곽대현 선생님은 종종 수업을 위한 모델로 어머니를 등장시키는데 그 때문에 아줌마 회원들은 성실함에 효심까지 넘치는 곽대현 강사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듣고 또 듣지만 여전히 사진 이론 강의는 어렵다.

곽대현 선생님이 아무리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준비해와도 사진 이론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금새 흘러버린다.

“아~ 머리 아파!!” “이론은 너무 어려워!!” 노은실씨의 말에 모두들 공감하는 듯 하다.

어서 빨리 출사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은행주공 아파트를 벗어나 그 토록 버르고 버르던 남이섬 출사가 계획되어 있다.

대부분 맛벌이를 하고 계시는 포토줍마 회원들!

1인 2역을 하느라 아파트 안 출사 외에는 모두들 시간을 맞춰 출사를 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번에 큰 맘을 먹고 모두들 시간을 맞춰 가는 남이섬 출사에 얼마전부터 설레여 이론 수업이 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꾸 들어도 세어나가는 이론 수업이지만 그래도 힘들게 가는 남이섬 출사에서 응용해 보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들어본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남이섬으로 떠나 있는 포토줍마 회원들 !!



### 드디어 기다리던 남이섬 출사!!

오늘은 왕언니 김정자씨도 오랫동안에 함께 했다. 김정자씨는 작년 문화배움터 포토줍마 사진반의 초창기 멤버이다. 작년에는 참여자의 카메라 기종이 똑딱이가 대세였으나 한 두명씩 DSLR을 장만하시면서 똑딱이 카메라를 가지신 참여자들은 하나 둘 씩 그 수가 줄었다. 왕언니 또한 커다란 dslr 사이에서 똑딱이 카메라를 들고 참여하시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또한 본인 스스로 연장자여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너무도 배우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계셨다고 한다.

오랜 고민 속에 큰 용기를 내어 앞으로 열심히 배우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뺨까지 물고 등장하셔서 나머지 포토줍마 회원들의 출사길에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 주셨다

“앞으로 출사 다닐 때 길만 알려주면 나 운전은 자신있어!!” 젊은 사람들도 몰기 힘든 커다란 차를 거침없이 운전하신다.



기꺼이 포토줍마의 출사길을 책임지시겠다는 왕언니!! 오랜만에 가는 남이섬이라 모두들 길이 험갈려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과일이며 커피며 차 안에 먹거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왕언니의 센스 덕택에 나머지 회원들은 나들이 하듯 즐거운 출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늘의 출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생까지 구해놓고 오셨다는 노은실씨를 비롯하여 모두들 어렵게 맞춘 일정이니 만큼 가는 길 차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여전히 소녀같은 감성





을 지니신 송정란씨는 남이섬으로 가는 길 차 밖 풍경 하나하나 꼼꼼히 두 눈에 담아본다.

“단풍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짙어!!” “해가 이쪽으로 비춰서 그런가봐!!”  
얼른 셔터를 눌러 두 눈 말고 카메라의 눈으로 지금 이 흥분을 영원히 가둬두고 싶은 마음! 포토zoom의 열정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다.

입구부터 볼거리... 아니 찍을거리 천지인 남이섬!! 석상 하나 나무 하나하나 훌륭한 모델이 된다. 흔히 보던 우산도 나무에 거꾸로 걸어놓으니 카메라에 담고 싶어진다. 짙은 녹음의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노오란 낙엽도 ‘찰각’ 하는 소리와 함께 네모 안에 갇혀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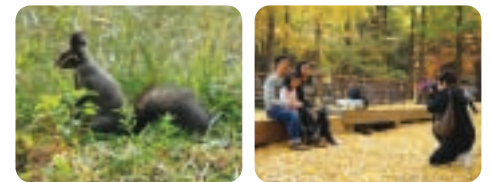
“앗!! 청설모다!!” 사진 속 네모 안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요 날렵한 녀석은 셔터 속도 보다 날세게 달아난다.

곽샘이 알려주신 셔터스피드를 이용해야해!! 하고 머리가 외치지만 다이얼을 조정 하는 사이 이내 프레임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알미운 녀석!!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카메라를 연사 모드로 놓고 다시 한번 요 날랜 녀석을 찾아본다. ‘찰각 찰각 찰각 찰각.....’ 심 없는 셔터 소리에 어느 틈에 어느 한장의 네모 안에는 꿈쩍 없이 갇혀버린 청설모가 들어있다.

“사진 찍어줄까?” 너무 이쁜 꼬마 모델을 발견한 김순희씨!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면 아빠는 사진 찍느라 항상 사진 안에 없다. 이럴 때 누군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나타나면 단란한 가족 사진 속에 가족 모두가 담기게 되어 추억은 배가 된다. 더군다나 멋진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더욱 더 반가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사진도 찍고, 아이들을 모델로 낙엽 날리는 신도 연출하고 아이들과 부모 모두 얼굴에 함박 웃음이 가득하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모두 모두 행복한 풍경이다. ‘찰각’ 찰라의 순간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기분! 사진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거 어때?”  
“아! 이거 좋다!!”  
“난 이 각도에서 찍어왔어!”  
“좀 어둡게 나왔지?”

포토zoom 회원들에게 리뷰의 시간은 100번의 이론 수업보다 소중한 시간이다. 틈틈이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포토zoom 회원들의 사진 실력도 나날이 발전한다.



남이섬 하면 생각나는 ‘겨울연가’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해놓은 온사마  
배용준과 지우히메 최지우의 겨울 연가 포스터  
최지우를 가리고 그 위치에 앉으니 온사마 품에 안긴 지우히메가 된다.  
“내가 언제 온사마 품에 안겨 보겠어?”하고 신나게 달려가 보지만 막상 배용준  
얼굴을 보니 얼굴이 붉어진다.  
이때 들리는 포토줍마 작가들의 외침!!  
“더 짹!! 안겨봐!!” 모델보다 작가들이 더 신이 난다.  
“다음엔 내 차례!!” 모두들 서로 찍고 찍히며 소녀로 돌아간다.  
“나 오늘 배용준 품에 안겨봤어!!”

즐거운 출사길!! 배용준 품에 안기기 까지 했으니 오늘 포토줍마 회원들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포토줍마\_이상덕씨 작품



포토줍마\_송정란씨 작품



## 박은진

“엄마!! 여기도 휴지요!!”

클레이 아트 수업이 끝난 후 박은진씨는 풀장 청소를 한다.  
아이들이 미쳐 치우지 못하고 흘리고 간 클레이 조각들이며  
휴지들을 청소하는데 딸 미연이가 옆에서 거든다.



작년 문화배움터 쉼트반으로 인연을 맺어  
현재 포크아트반의 반장인 박은진씨!



“이거 내가 뭐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 많이 했죠!”  
포크아트반 수업 장소를 변경하면서 회원들과 강사  
그리고 수업 장소를 고려해서 일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듯 했다.  
모두의 요구를 맞추기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원은 처음보다 줄었지만 박은진씨의 노력으로 무사히 강좌를  
이어갈 수 있었고 여름방학 특강 또한 이렇게 박은진씨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이 더해져 성공적으로 강좌를 마칠 수 있었다.





## 은행주공 생태연구모임

참여자 하은영(113동), 이영란(103동), 이경진(120동), 김문심(106동), 고은주(111동)

창작따꾸리 소리와 함께 봄이 시작되는 은행주공 아파트!  
남한산성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지는 은행주공 아파트는 산속에 아파트가 들어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삭막한 도시를 사는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꿈꾸는 연금술사이다.  
식물은 공기 중에 340ppm만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순수한 탄소를 분리해내고,  
분리한 탄소들을 재결합시켜 이파리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든다.  
게다가 부산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도 배출한다.  
숲이 매년 만들어내는 물질량은 1헥타르에 보통 10톤 이상이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이 이웃하고 있지만 우리는 꽃, 나무, 곤충, 새라는 이름 외에 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의 이름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밖에 부르지 못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이웃이지만 가까이 있어 그 중요성을 자주 잊어가는 자연!  
여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해 줄 이들이 모였다.

이제 우리와 이웃한 자연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떤 생애를 살아가는지 배울 것이다.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을 이끄시는 김현주 선생님은 은행주공 주민이자 이 지  
역 생태전문가이다.

환경지도자협회 회원이기도하며 1999년 부터 성남지역에서 생태체험학습, 환  
경학교, 남한산성 환경기행 등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주 선생님은 풀장  
과 문화배움터 모두와 인연이 깊다. 2007년 풀장환상 때부터 생태체험 강사로  
활동하셨으며, 지금도 남아있는 은행주공의 생태벽화와 이정표도 김현주 선생  
님의 도움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07년, 2008년에는 아이들을 대  
상으로 생태수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그때 생태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의 엄마  
들이 그 대상이다. 아이들이 김현주 선생님의 생태체험을 함께 한 후 자연에게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목격한 엄마들이 이번에는 그 이름 부르기에  
도전한다.

매주 수요일 9시 반 은행주공 관리사무소 앞, 목에 요상한 물건을 목에 건 사람  
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든다.

은행주공 생태연구 모임은 이곳에서 모여 간단히 그날 탐사할 주제의 이론 강



의를 듣고 김현주 선생님이 미리 정한 코스를 돌며 은행주공의 구석 구석을 탐사한다. 목에 건 물건은 '루페' 라고 부르며, 잎사귀나 곤충 등을 10배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것으로 생태수업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이다.

오늘의 주제는 '버섯'이다. 김현주 선생님이 은행주공과 남한산성 인근에서 채취한 버섯 샘플을 보여주시며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회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 “버섯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아..당연히 식물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쉬운걸 물어보셨을라구? 함정인가? 그렇다면 동물?

버섯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함으로 동물은 아니다. 그렇다면 식물이겠지? 아니다.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함으로 식물도 아니다.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류이며 균류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자실체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버섯은 뿌리가 아니라 균사를 가지고 있다. 식물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지만 버섯은 포자가 떨어지면 균사가 된다. 그리고 이 균사가 많이 접합되면 다시 버섯이 된다. 이러한 버섯들은 균류로써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

“어떤 버섯이 식용 가능하고, 어떤 버섯이 먹으면 안되는 걸까요?” 두번째 질문이다.

“색이 화려한 것은 먹으면 안되요!!” 이경진씨가 자신있게 대답한다. 하지만 화려한 색을 가진 버섯 중에도 식용 가능한 것이 있다. 답은 뭘까?

“버섯은 파는 것만 먹어야 해요!!” 김현주 선생님의 답에 조금은 김이 빠진다.

하지만 버섯은 우리나라에만도 2,000여 종이 있고 전문가도 그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버섯은 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8천배 확대 현미경으로 구분해야만 정확한 이름이 나온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외관만 보고는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버섯의 독성은 다양하여 알콜 분해를 막는 독성부터 땀을 흘리게 하는 독성,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에서 냄새만

맡아도 죽음을 부르는 버섯까지 그 위험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야생버섯은 섭취 금지!! 파는 버섯만 먹어라!! 가 오늘의 가르침이다.

냄새만으로도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버섯이 있다니, 잠시 그 조그만 버섯이 무섭게 느껴진다.

#### 버섯들을 만나러 떠나보자!!

자! 버섯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 이제 은행주공의 버섯들을 만나러 떠나보자!!

조금 무섭긴 하지만 김현주 선생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다.

김현주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버섯 샘플들과 도감을 보면서 은행주공에서 찾은 버섯들과 비교해본다.

어떤 버섯은 김현주 선생님조차 처음 보는 버섯도 있을 만큼 은행주공에도 다양한 버섯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버섯은 축축한 곳에서 서식하므로 비가 온 뒤에 더 잘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은 버섯이 축축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땅 속에 숨어있던 균사들이 비가 오거나 축축해지면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죽기 전에 버섯으로 피어 포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축축한 곳에서 버섯이 많이 발견 되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친 발 밑의 돌 틈, 나무 등결의 사이사이 이 작은 친구들이 숨어있다.

처음엔 보이지 않던 버섯도 김현주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고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 뒤부터는 좀 더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낸다.





## 은행주공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버섯들



냄새무당버섯  
(청머루무당버섯)



헌테꽃구름버섯



백조갯버섯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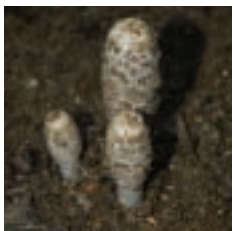
조개껍질버섯류

### 빵떡버섯이라고 불러주마!



상처 입은 나무 틈에서 기이한 버섯을 발견한 이영란씨!  
이 버섯은 김현주 선생님도 처음 보는 종류의 버섯이라고 한다.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회원들은 일단 빵갈기도 하고 떡 갈기도 한  
이 버섯을 빵떡 버섯이라고 이름 붙여본다.  
김현주 선생님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이름을 문의해보겠다고 하신다.  
만약에 새로 발견된 종이라면 이 녀석의 이름은 빵떡버섯이 될 것이다.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이 붙여준 이름 그대로 !!  
빵떡버섯! 직접 이름 붙여 왓지 더 정이 가는 이름이다.

### 남편 술버릇 고치는 먹물버섯



먹물버섯 피기 전



먹물버섯 핀 후

은행주공에는 먹물버섯이라는 이름의 특이한 버섯도 서식한다. 은행주공의 큰 은행나무 밑에서 발견한 이 버섯은 코프린이라는 알콜 분해를 방해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코프린이 함유된 버섯을 먹고 3일 이내에 술을 마시면 좀처럼 깨지 않고 술이 취한 상태가 계속 된다. 버섯의 갓이 피기 전의 상태가 식용가능한 시점으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속을 썩이면 이 버섯으로 요리를 해주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며 김현주 선생님이 귀뜸해주신다. 일순간 생태연구모임 회원들의 눈이 반짝이며, 버섯 모양과 특징을 머리에 한번 더 각인 시켜본다.

## 나뭇잎을 이용한 만들기 수업

“계수나무 낙엽으로 부엉이를 만들어볼까?”

“조릿대로 배와 메뚜기를 만들어볼까?”하며 똑딱 부엉이, 배, 메뚜기를 만들어주는 요술쟁이 엄마를 가진 아이들은 얼마나 감성이 더 풍부해질까?

넓디 넓은 은행주공을 탐사하며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김현주 선생님이 알려주신 나뭇잎 만들기!!

“아~ 이거 우리 용구한테 해줘야지!!” 하시며 생태연구모임 회원들은 야무지게 배워가신다.

아이들이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니 얼른 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걸음이 빨라진다.

엄마가 공부를 해서 더욱 좋은 점은 아이들도 덩달아 배울 수 있다는 거다.

은행주공 생태연구 모임의 회가 거듭될 수록 회원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도 함께 성장한다.



## 은행주공생태연구세밀화 모임



이렇게 은행주공생태연구 모임은 김현주 선생님이 계절과 시기에 맞게 선정한 주제로 매주 함께 모여 은행주공아파트를 누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인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공부한 주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생태 세밀화 수업을 갖는다.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의 회원인 하은영씨는 은행주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다.

생태수업을 듣다 보면 사진으로는 모두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럴 때 노트에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은 정말 간략한 그림이다.

그런데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회원들의 그림은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은 수준급의 스케치이다. 그 뒤에는 하은영 선생님의 공이 숨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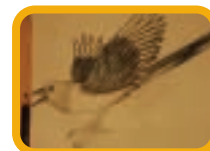
생태수업을 하면서 회원들이 나뭇잎이나 곤충 등 공부한 대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본 하은영선생님이 생태수업을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의를 자원하신 것이다. 강의는 하은영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보탬미술학원에서 진행된다. 강의에 이어 장소, 재료까지 제공하시는 하은영선생님께 회원들은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럴때마다 하은영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느라 본인 작업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생겨 본인에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라며 회원들의 마음을 보듬으신다.

전문가의 세심한 지도로 하루 하루 성장하는 그림 실력!!



점점 예사롭지 않은 작품들이 등장한다. 그냥 노트 속에 담아만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실력들!!

“이번 은행주공 마을 축제에 세밀화 작품도 전시해 보면 어떨까요?” 하며 회원들을 설득해 보았다. 처음엔 “아.. 뭘요...” 하던 회원들도 나날이 발전하는 실력을 감추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결국 제안에 “YES”를 외치셨다.



“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영란씨도 의견을 내셨다.

생태수업을 하는 동안 자료 사진으로 찍어놓은 수 많은 사진들을 책으로 만들어 자료화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 간편하게 사진을 넣고 글을 써서 책으로 편집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웹사이트를 본 적이 있으시다는 이영란씨!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부들이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다. 평소 책만들기에 관심이 있었던 하은영선생님과 김문심씨는 손으로 직접 책을 만드시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은 동별 생태정리 판넬과 생태책, 그리고 손수 그린 생태 세밀화를 은행주공마을축제 때 전시하기로 했다.

책은 각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삼았지만 사진은 공유하기로 했다. USB에 사진을 넣는 법부터 책 만드는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법 등 하나하나 배우며 책을 완성해나갔다. 생태 세밀화는 하은영 선생님의 지도하에 각자 작품을 만들어 갖고, 동별 생태 정리는 인터넷에서 뽑은 아파트 지도를 바탕으로 공동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커다란 전지에 아파트 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그 동안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찍은 나무, 꽃, 풀 등의 사진을 동별로 붙여 나갔다. 작업은 하은영선생님의 미술 학원에서 진행되었고, 김현주 선생님이 가져오신 코팅기 덕분에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조금씩 완성 되어 가는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의 작품들!!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들의 전시회가 기대된다.



이경진씨의 엉겅퀴



이영란씨의 버섯



이영란씨의 왕거위벌레



고은주씨의 방아깨비



# 하나되다

01 하나되다

02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

03 It 사람 (Purple) - 이유화



## 하나되다

하나되다 - 서로 다른 개체가 뜻, 마음, 생각 등이 일치하게 되다.

이제 두 몸에 따로 있던 세포들이 공동으로 살아갈 공간을 차지하면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연리의 여정은 끝이 난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의 여정에도 갈등과 상처도 있었지만 인정하고  
보듬는 과정을 통해 한 해 과제를 마치고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다.

은행주공 마을문화제에서 그 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은행주공문화배움터와 풀장환상을 알리고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의 향기를 나눴다.







## 드디어 축제의 날!!

2009년 10월 17일 풀장 환상에서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가 열렸다. 그 동안 한 편 갈등이 있었던 은행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도 풀고 풀장의 문을 열어 여는 마을의 잔치!! 각 각의 문화예술 동아리는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알קות 날씨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어제까지 고민에 빠져있던 문화배움터 참가자들은 당일 아침 반갑게 고개 내민 햇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포크아트, 한지공예, 생태 등 전시팀은 이른 시간 부터 부산을 떨며 풀장 야외에 전시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일순간 하늘의 얼굴이 찌푸려지더니 심술 맞은 비를 쏟아 붓는다. 그간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 젖을 세라 부리나케 풀장 강의 공간 안으로 전시품을 옮겼다. 한 차례 소동이 일고 나자 갑자기 하늘이 쨍하며 해를 내비추고 허탈하지만 다행이란 마음으로 다시 전시품을 원래의 자리에 전시한다.

## 전시 나만의 책만들기



‘나만의 책만들기’ 강좌는 그 동안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만든 동화책을 전시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는 아이들의 꿈, 고민, 어른들에 대한 불만, 가족 이야기 등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눈으로 그려져 있다. 어린이 관람객 뿐 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장씩 아이들의 책을 들춰보며 동심의 세계에 빠져본다.



“허허허~ 이거 재밌네요!!” 오늘 기타반 연주의 협연을 위해 오신 수진동 성당 밴드 이승원씨도 아이들이 쓴 동화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 “이거 내 책이에요!!” 어린이 동화작가들은 친구들에게 자기 책을 소개하기에 바쁘다. 아이들의 책을 보는 어린이 관람객들은 또래의 작가 친구가 부러운지 꼬마 작가의 동화책에 빠져본다.

## 전시 포크아트

티박스, 빗, 티슈케이스, 옷걸이, 보석함... 마다마다 화려하게 핀 꽃송이들! 포크아트의 화려함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와~ 이 빗 완전 럭셔리한대!!”

“딱 내 스타일이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빗으로 김순희씨가 머리를 빗어본다.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왠지 찰랑거리는 CF 속 샴푸모델 같은 머릿결로 변할 거 같은 생각도 든다.

“이거야? 자기가 만든거?”

“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주은씨는 전시장을 찾아온 남편의 방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남편분도 아내의 솜씨가 자랑스럽고 흐뭇하긴 마찬가지. 집에서도 봤을 작품인데 이렇게 전시장에 놓으니 더 근사하고 멋있다. 내 아내가 세삼 더 사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순간이다.





## 전시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와~~~”

드디어 공개되는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의 세밀화 작품!!

보는 사람 모두들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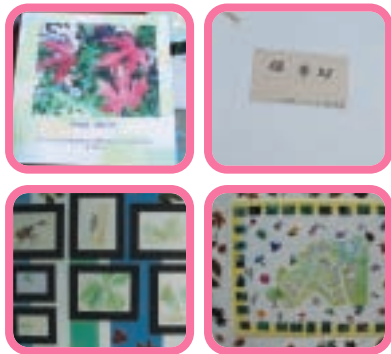
“우리 아파트에 이런 새가 살아요?”

“와~ 이 벌레는 나도 본 적 있어!!”

질문이 설세 없이 쏟아진다. 모임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 다들 관심들이 대단하다. 은행주공 아파트 곳곳에 사는 새, 벌레, 나무, 꽃을 그린 세밀화와 아파트 곳곳의 생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동별 생태 지도, 그리고 연구모임을 함께 하면서 들은 강좌 내용을 정리한 은행주공아파트 생태북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은행주공아파트에 사는 관람객들에게 세삼 은행주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시였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숨쉬고, 느끼며, 살아가는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생태북의 부제목처럼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

나뭇잎 하나, 벌레 하나, 새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은행주공생태연구모임이 있어 내가 사는 마을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의미있는 전시였다.



## 전시 한지공예

“이거 파는 건가요?”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리는 질문이다. 아마추어 주부들의 작품이라 하기엔 너무도 근사한 한지공예 작품들!!

이 중엔 아파트 앞 분리수거 집하장에서 가져온 조그만 찻상이나 고가구 등으로 만든 작품도 있다.

하마터면 분리수거 될 뻔 한 낡은 가구도 새주인을 만나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탐나는 물건으로 환골탈태했다.

이 찻상을 버린 주인은 그 낡은 찻상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 된 것을 알고 있을까?

숨쉴 좋은 주인을 만나 전시장에 놓인 찻상에 핀 모란꽃이 더 탐스럽게 느껴진다.

휴지 케이스에는 이해경씨가 공들여 판 해바라기 꽃이 피어있다. 꽃잎 하나 잎맥 하나 하나 정교하게 커팅한 솜씨가 주인의 인내심과 야무진 손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한지 작품 틈에 청동빛 질감을 자랑하는 농부인형이 있다.

이 역시 한지로 만든 작품!! 검정 한지를 모형 위에 두텁게 바르고 락스를 희석한 물로 탈색의 과정을 거치면 청동빛의 질감이 탄생한다. 언뜻 청동 작품인 줄 알고 두팔에 힘을 가득 주고 들었다가 그 가벼움에 허탈함이 느껴지기 까지 한다. 가벼우면서도 엔틱한 멋이 있는 농부인형 소품! 가정집 거실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안성맞춤이다.

투박한 질감과 화려한 색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지!!

조상의 지혜로 탄생한 우리의 한지에는 질리지 않는 멋과 품격이 있다.





## 전시 사진

포토축마의 사진 전시의 주제는 은행주공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네모난 액자 가득 담긴 은행주공의 반가운 얼굴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상덕씨의 사진에는 어린이 밴드의 기타를 담당하는 귀염둥이 막내아들 성빈이를 비롯한 어린이 밴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액자 안에 담긴 작품 전시 외에도 포토축마 활동을 하면서 모델이 되어준 은행주공의 아이들 사진을 뽑아 클립으로 꼬아 폴장 철망에 걸어 놓았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은행주공마을잔치 때 폴장으로 오면 사진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해 놓아 사진 속 모델들이 대거 폴장을 찾았다. “여기있다!! 내 사진!!” 하며 하나씩 줄어드는 사진들!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하나 생겼다.



## 어린이 벼룩시장

“벼룩시장 어디서해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공고를 했지만 아침 일찍 부터 짐을 잔뜩 들고 찾아 오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시간을 공지하느라 진땀을 뻘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조금 일찍 돛자리를 펼치게 했다. 어린이 벼룩시장의 인기는 상당했다. 준비성 강한 친구들은 ‘행복을 주는 가게’라는 간판도 준비했다. 쑥쑥 자라는 키 탓에 이제는 작아진 옷, 다 본 동화책, 이제는 흥미를 잃어버린 장난감, 학용품 등의 품목이 주를 이룬다.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폴장 가득 자리를 차지한 벼룩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폴장 가득 북적이는 인파 속에 흥정이 이루어진다. 벼룩시장에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기도 한다. 포켓몬 카드를 판 500원으로 게임기를 사서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거스름돈을 준비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등 일일 상인체험에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가방도 이뻐요!!” 물건을 소개하는 모습이 어른들 못지 않다. 파는 재미, 사는 재미가 쏠쏠한 어린이 벼룩시장!! “500원에 샀어요!!” 갖고 싶은 게임기를 손에 넣은 아이의 얼굴엔 만족감이 번진다.

## 체험 한지공예

풀장의 한켠엔 체험의 공간도 마련되었다. 한지공예 체험의 시간은 용미자 선생님이 담당해주셨다. 즉석에서 똑딱 만들 어지는 화려한 손거울 !!

알록달록 이쁜 손거울을 손에 든 참가자들의 얼굴에 함박웃 음이 한 가득이다. 손에 손거울을 든 사람들이 늘 수록 한지 공예 체험장에 인파가 더 몰린다. 한지공예 체험장에는 어른 들, 특히 주부 참가자들의 인기가 높았다.

“이건 어디서 줘요?” “저기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나도 금새 만들 었는걸!!”

소문은 삼시간에 돌고 인파는 속속 모여든다.

금새 준비한 거울틀, 한지 등 재료가 동이 나 버렸다.



## 체험 나무 핸드폰줄 만들기

주부들에게 한지공예 체험이 인기라면 함께 온 아이들은 그 옆에 마련 된 나무 조각에 그림을 그려 만드는 핸드폰줄 만들기 체험에 줄을 선다. 은행주공 주부들이 준비한 파 전과 떡볶이로 배를 채운 아이들이 행사장에 속속 모여든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준비한 이번 체험 행사는 나무 조각에 펜을 이용하여 꽃과 나무, 곤충 등 자연을 그려 만드는 나만의 핸드폰 줄 만들기 체험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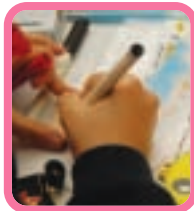
“저는 나비요!!”

“여기 노란 색깔 주세요!!!” 아이들의 성화에 정신 없는 행사장!!

아이들과 함께 찾은 엄마들 중 낮익은 얼굴들이 눈에 띈다.

문화배움터에 참여했었던 엄마들은 순식간에 진행요원을 자처하며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하며 행사장 도우미로 변신해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의 작은 손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풀장을 내리 췌던 눈부신 햇살이 누그러진 풀장의 오후!

어린이버룩시장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자리를 하나씩 정리하고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 이화자씨의 목소리와 함께 관객객으로 바뀌어 풀장 계단에 자리를 잡는다. 전시를 관람하던 관람객들과 악기 세팅을 위해 번진 음악 소리를 듣고 찾아온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보태져 풀장계단이 금새 관람객들로 가득찬다.



## 공연 어린이풍물

어린이 풍물반의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 으로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 공연이 시작 되었다. 옷이 날개라더니 파랑, 빨강, 노 랑의 색으로 장식된 적삼을 차려 입은 아 이들은 평소보다 멋진 기량으로 신명난 연주를 들려줬다. 무대 위에서는 다소 긴 장한 듯 경직되었었던 아이들!! 연주가 끝 나고 관객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의 성취감이 활짝 핀 얼굴과 더 커 진 목소리에 가득하다.

## 공연 어린이밴드

이어지는 어린이 밴드 공연!! 보컬을 맡은 아이가 나오지 않아 급박하게 보컬을 맡게 된 은선이를 비롯하여 연습이 부족했던 어린이 밴드 아이들!

일단 무대에 올랐으니 ‘무조건’ 을 힘차게 불러본다. 우선은 시원시원하고 커다란 목소 리로 무대를 제압하는 은선이!!

어른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선곡이었던 탓에 풀장을 찾은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하 나가 되어 무조건을 따라 부르고 밴드 아이들은 이에 힘입어 연주에 자신이 붙는다.

흥에 찬 관객들은 ‘앵콜’ 을 연발하고 밴드 친구들은 당황한다. 앵콜곡 까지는 준비를 못한 아이들은 수줍은 듯 인사를 하고 무대를 퇴장한다. 다음 공연엔 앵콜곡을 준비하 는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 오늘 알게 되었을 것이다.







### 축하공연 재즈댄스

오늘의 재즈댄스 공연은 어린이 풍물반의 깜찍이 한수민 학생이 준비했다. 평소 귀엽고 깜찍하던 수민이에게 이렇게 멋진 춤솜씨가 있었다니 관객들은 미래의 이효리의 춤솜씨에 모두 넋을 잃었다. 수민이의 멋진 춤솜씨에 폴장을 찾은 여학생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남학생들은 하트뿔뿔!! 관심의 눈길을, 어른들은 감탄의 눈길을 보낸다. 댄스 짱 수민이에게 싸인이라도 받아놔야 할 것 같다.

### 축하공연 플룻&해금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찬조공연이 이어졌다. 보네르 플룻오케스트라 김형미 단장의 플룻, 딸 초등학교 6학년 최유림 양의 해금 연주로 '사랑의 인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랑의 인사'와는 느낌이 사뭇 다른 이색적인 연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동,서양의 두 악기가 어우러져 잔잔한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되었다. 엄마와 딸이 연주하는 공연이라 더 멋진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을 끝으로 은행주공 마을 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플룻과 해금처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마지막 플룻과 해금의 연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로 어우러져 마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 이 유 화

풍물 공연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알록달록 이쁜 적삼을 입히는 이유화씨!!  
아이들 하나하나 옷 매무세를 챙겨주시느라 정신이 없다.

여름방학 특강 리본공예 시간에 만든 리본 핀을 머리에 꽂고 폴장청소를 하던 소녀같은 이유화씨.

폴장의 오래 묵은 먼지를 락스로 닦아 내느라 군데군데 허물이 벗겨진 손으로 폴장환상이 잘 운영되려면 폴장 이용의 규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시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열정으로 폴장환상을 지키는 문화배움터 7인방이 있어 폴장은 오랫동안 그 온기를 유지할 것이다.

# 빛이 되다

01 빛이되다

02 플장환상의 겨울

03 마을벽화작업

04 마을지원센터 사랑마루 은행주공팀장 후기





## 빛이되다

빛이되다 -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각각의 색깔을 지닌 물감을 섞으면 검정이 되지만 다른 개성을 지닌 빛을 섞으면 하얀 빛이 된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마주했던 각기 다른 사람들!  
그들이 모여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만들어내고, 풀장환상이라는 공간도 만들어냈다.

갈등도 절망도 많았지만 은행주공에 300년을 뿌리내린 연리목 은행나무처럼  
인내심을 갖고 서로 보듬은 그들은 하나의 환한 빛이 되었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이제 단순히 동아리들이 아니고 풀장환상은 이제 더 이상 공간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들의 추억과 열정이 서린 이것은 이제 꿈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 폴장환상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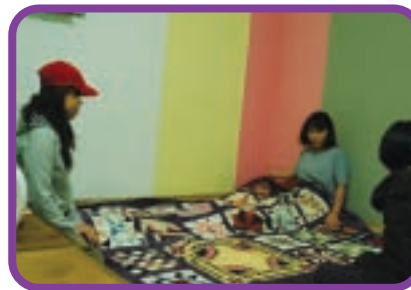
온돌 판넬을 깔아 따뜻한 폴장 바다!! 뜨끈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으니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날 무렵! 이주은씨가 멋진 퀼트가방에 무언가 잔득 넣어 폴장을 방문하셨다. 가방 안에 천을 펼치니 얼마나 오랜시간 작업을 했을지 모를 커다란 천조각이 폴장 바닥 한 가득 깔린다.

오늘은 이주은씨의 퀼트이불 마무리 작업을 강현희, 박은진씨가 함께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 따뜻한 바닥에 퀼트이불을 덮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한땀 한땀 바느질 품앗이를 하는 모습이 어릴적 시골서 보던 풍경 같아서 정겹고 따뜻하다. 아파트벽을 함께한 이웃들끼리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폴장환상이 이를 가능케 했다. 도시의 아파트속에서도 문화는 이런 따뜻한 소통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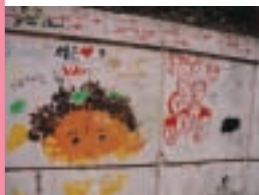
작년 문화배움터 퀼트반 참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강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솜씨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주은씨처럼 그 영역을 넓혀 포크아트 등 다른 장르의 강좌에 도전하거나 강현희씨처럼 퀼트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강현희씨의 꼼꼼한 바느질 실력과 특유의 융화력을 눈여겨 본 사랑마루 이상훈 팀장의 제안으로 상대원 시장의 우리동네 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퀼트 강좌를 맡아 2년째 지속하고 있다. 또하나의 세계의 도전하는 이주은씨, 나의 세계를 다른 이와 나누는 강현희씨 둘다 멋진 사람들이다. 폴장엔 이렇듯 멋진 이들이 모여 온돌마루 처럼 따뜻한 정을 나눈다.







## 마을 벽화 작업

2007 풀장환상 때 그려진 아이들의 그림벽화 은행주공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장식한 벽화는 동심을 담아낸 독특한 형태의 벽화였으나 그 작업의 특성상 동네 아이들의 낙서장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은행주공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 이번엔 벽화작업에 도전했다.

벽화 작업에 앞서 페인트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벽화 청소 작업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쌀쌀해진 날씨 두꺼운 작업복을 차려입은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이 하나 둘 씩 벽화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마스크로 무장하고 시작한 청소 작업!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강현희씨!! 정성껏 마련해온 음식들을 부녀회 사무실에 한상 가득 차려놓으셨다. 이제 은행주공아파트의 일은 '나의 일'이 되었다. 어느새 주인됨이 몸에 가득 밴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작업을 위해 나선다.

사랑마루 팀 작가들이 생태벽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은 벽을 다시 새하얀 캔버스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어느새 노오란 우비와 작업장갑으로 작업준비에 돌입한 그녀들!! 한 손에 붓과 롤러를 들고 벽을 새하얗게 만들어 나간다.

어느새 소문이 돌아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원들 뿐만 아니라 문화배움터에 참여했던 주부들이 하나 둘 씩 벽화작업에 참여했다. 길을 가던 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저도 좀 해봐도 될까요?” 하며 붓을 들어본다. 하지만 바탕작업만 하기엔 너무도 재주가 넘치는 은행주공의 주부들!! 사랑마루 팀의 작가들이 스케치하고 외곽을 칠해놓은 나무를 채워넣는 다던가 바탕에 은행나무 잎, 풀 등으로 꾸미는 작업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풀썰 사이에 몇번의 터치 만으로 잠자리를 완성해버린 이정진씨를 비롯해 문화배움터 운영위







원들은 하나 둘 씩 그 예술 본능을 참을 수 없다.  
“숨은 그림 찾기 어때요?” 미술선생님 하은영씨의 제안으로 머리를 맞댄 그녀들은 급기야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 사이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 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메뚜기 그림을 그려넣었다. 아이들이 메뚜기를 찾으며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며 흐뭇한 얼굴로 메뚜기를 완성해 나간다.

벽화 작업 중 갑자기 쏟아진 눈과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작업 일정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 속에도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문화배움터 참여자들 그리고 길을 지나던 은행주공 주민들이 돌아가며 벽화작업에 참여했다.

길을 지나는 주민들은 누구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보여왔다.  
“자기가 그린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  
“아이고 수고들 많으시네!! 덕분에 화사해졌어!” 하며 건내는 이웃의 따뜻한 커피!  
“아줌마 이거 뭐예요? 이 잠자리 이빠요!” 하며 건내는 아이들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있어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 속에도 훈훈하게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은행주공 아파트에서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진정한 성과는 이런 따뜻한 변화가 아닐까?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2009년  
생활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은행주공문화배움터!  
그곳에는 나눔과 이해의 꽃씨가 뿌려져 있었다.

이상훈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총감독, 은행동 팀장)

어느새 3년이다.

은행주공에 우리동네문화예술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풀장환상이 시작되어 3년간의 지원사업이 2009년으로 끝났다.

지역 미디어단체인 늘봄에서 소통과 나눔을 위한 미디어활동을 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2007년부터 은행주공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지원사업의 마지막 해인 2009년은 특별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창조해 나가는 동네 속 생활문화예술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마지막 기간이었기에 지원팀으로 결합했던 내 스스로에게도, 사업의 주체인 은행주공 주민들에게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다.

생활문화예술, 그것은 커뮤니티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결국 소통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마움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그러면서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 관계' 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역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문화배움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좋은 뜻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길 원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한 마디에 다시 안볼 것처럼 뛰쳐나가기도 하고, 한 칸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작은 한 마디에 그 동안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모든 것이 기쁜 추억으로 자리매김 되어 버리기도 한다.

늘 동네에서 오고 가며 만나고, 지나 다니면서 소식을 접하는 이웃들인지라 많은 이야기들이 떠 다니기도 하고, 순식간에 소문이 되어 동네 전체를 뒤덮어 버리기도 한다. 아마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라면 어디나 그럴 것이다. 특히 한 단지라고 하는 지역 테두리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늘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의 관계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자기들 끼리 쓰는 것 같고,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하는 것 같고, 심지어 배움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같고, 누구는 말만 많이 하고 힘든 일에서는 쏙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관계는 불신을 만들게 되고, 서로의 의지를 빼앗아 버리고 만다.

생활문화예술은 '나 홀로 예술'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예술' 일 것이다.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때 즉 소통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걸까?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통해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고마움을 나눌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벽화 작업을 할 때의 일이다.

2009문화배움터 프로그램은 이미 모두 정리 된 11월, 2007년 동네 아이들과 작가들이 만든 벽화의 그림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았다. 결국 그 책임은 문화배움터 운영위원들에게로 돌아 왔고 더 추워지기 전에 벽을 하얀 색으로 덮어 버리기로 했다.

사랑마루에서는 지난 흔적을 모두 없애 버리는 것도 아쉬웠지만, 은행주공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운영위원들의 노력이 보다 가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부들과 논의 끝에 은행주공 주위에 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생태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작업하기로 했다. 물론 작품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이견이 없었다.

운영위원을 비롯한 문화배움터 회원들이 노란 우비를 입고 작가들이 그린 밑 그림에 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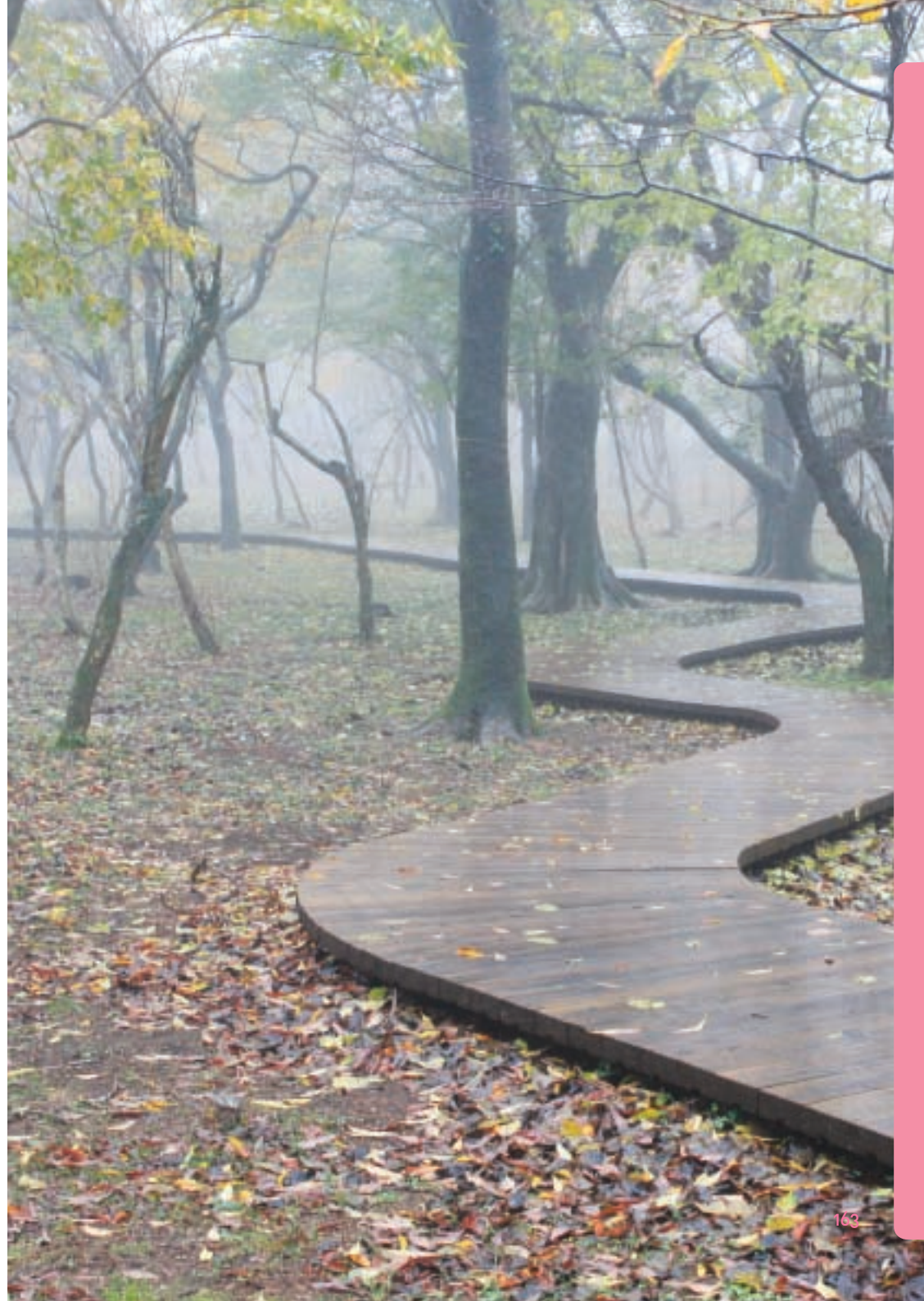
작가들은 한 여름에 풀장환상 작업을 할 때는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던 주부가 직접 준비한 맛난 점심 식사를 받아본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작업하고 있는 주부들을 보며 잘한다고, 이쁘다고, 고맙다고 한다. 그리고 작업장 한 쪽에는 굴이며, 고구마 등 가져다 준 새참이 놓여 있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주부들도

“어제 아이 학원 때문에 못 와서 미안해 추운데 고생 많았지?”,  
“어제는 부녀회 언니들이 많이 와서 그랬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잠자리를 잘 그려?”하며 서로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나눈다.

벽화가 완성될 무렵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문화배움터 참가자들은 201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열심히 해보자며 새롭게 문화배움터를 이끌고 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찾아올 풀장환상의 봄을 기다린다.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 3**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최 :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운영위원회  
후원 : 성남문화재단